
碩士學位請求論文

桐溪 鄭蘊의 意識變貌樣相

指導教授 金 相 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京 姬

1994年 8月 日

桐溪 鄭蘊의 意識變貌樣相

指導教授 金 相 助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京 姬



金京姬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양운필 
審査委員 김상조 
審査委員 최남준 

<抄 錄>

桐溪 鄭蘊의 意識變貌樣相

金 京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相 助

이 논문은 문학이란 작가의 정신적 궤적이라는 기본전제 하에 작가 桐溪의 意識의 變貌에 주목하면서 그의 詩世界를 구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동계가 살았던 16세기 말 - 17세기 초 조선은 壬丙兩亂과 빈번한 土禍와 黨爭을 겪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모순이 노정되기 시작했던 시기다. 안정성없는 격변의 시기에 벼슬에 나간 동계는 적극적인 태도로 현실에 참여하였다. 이때 그의 世界認識과 行動의 規範이 된 것은 '性理學的 義理觀'이다. 동계의 경우 '성리학적 의리관'은 그의 생애와 행동이 지닌 내면적 의미를 구명할 수 있는 관건이 되며, 동시에 그의 시세계의 意味構造를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동계 시세계의 의미구조를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意識이 현실 세계와의 끊임없는 충돌과 화해 속에서 어떻게 변모 발전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 논문을 통해 논의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계의 世界認識과 行動의 規範이 된 것은 '性理學的 義理觀'이다. 이러한 의리관은 道義를 중시하는 가문과 忠, 信, 篤, 敬을 중시하던 부친의 가정 교육과 실천철학인 남명의 학통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의리관은 政界에서 不義를 보면 直諫을 올리고 時議가 합당하지 않으면 辭疏를 내고 歸鄉하는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

둘째, 투철한 의리관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현실참여 의지와 道의 실천 의지를 담은 作品群을 살펴 보았다. 동계가 이상으로 삼은 忠은 義에 근거한 추상적 원리이지 對者的 德目은 아니다. 忠이 對者的 德目이라면 처음 신하의 관계를 맺었던 임금에 대한 본래의 입장을 끝까지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忠이 義라는 추상적인 도덕원리에 근거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임금에 대한 一貫된 태도를 반드시 고수할 필요는 없다. 그는 이러한 忠의 실천으로 直諫을 최우선한다.

셋째, 정치적 시련으로 인한 좌절감과 향수 등 인간적인 고뇌를 담은 作品群을 살펴 보았다. 동계는 주로 言官職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념인 성리학적 의리를 실현하려다 번번히 유배, 탄핵, 폄하를 당한다. 동계는 '의리'로 忠信을 다하려다 당한 禍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유배는 심각한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正道를 주장하다가 추방당하고 이로 인하여 느끼는 소외감은 正義 실현에 대한 신념이 강한 인간형일수록 더 큰 시련이 된다. 絶島라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공간에서 고독감, 궁핍의식, 자아 상실감, 자기 연민, 무력감, 이별의 정한, 고향 상실감 등 우울하고 어두운 제 감정의 혼조를 보인다.

넷째, 좌절감과 향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서와 자연에의 침잠을 통해 심성을 수양하고 天理를 수용하는 脫俗의인 境地를 보여 주는 作品群이다. 實踐的인 學問傾向을 견지했던 동계는 政治的 敗北로 인해 觀念的 內面的인 現實認識으로 변모한다. 유배말기와 병자란 후 찾은 자연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피처라는 의미를 갖는다. 自然은 道의 具現體이며 自然에로의 沈潛은 道·天理의 順應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의식의 전환은 현실적 삶의 완성에서 내면적 삶의 완성이므로 그 지향점을 바꿨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는 退行意識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국면으로의 전환이며, '내면적 지향'이라 해석해야 한다.

目 次

<抄錄>

| | |
|--------------------------|----|
| I. 序 論 | 1 |
| II. 桐溪의 個人的 社會的 處地 | 6 |
| III. 桐溪의 詩와 意識 | 19 |
| 1. 理想實現의 意志表明 | 20 |
| 2. 挫折과 鄉愁의 變奏 | 37 |
| 3. 自然에의 沈潛과 內面化 | 55 |
| IV. 結 論 | 73 |
| 參考文獻 | 77 |
| Summary | 79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序 論

이 논문은 문학이란 작가의 정신적 궤적이라는 기본전제 하에 桐溪 鄭縑의 의식변모에 주목하면서 그의 詩世界를 구명하는데 목표를 둔다. 문학작품의 진정한 미적 현상은 작품 내에 폐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과 작가의 삶은 각각 그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상응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의 진정한 미적 현상이란 삶의 총체성과의 관련하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획득된다. 이 점이 바로 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동계가 살았던(1569:선조 2-1638:인조 16) 16세기 말 - 17세기 초 조선은 壬丙兩亂과 빈번한 上禍와 黨爭을 겪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모순이 노정되기 시작했던 시기다. 양반지배층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싸우고 여기에 朱子學의 지나친 名分論은 이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늦게 벼슬에 나간 동계는 광해군의 悖政을 지적하다가 유배를 당하고, 인성군·임해군에 대한 全慰說을 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歸鄉한다. 호란 때에는 강경하게 척화를 주장하다 항복 소식을 접하고 자결을 시도한다. 그 후 덕유산에 은거하며 여생을 보낸다. 이처럼 동계는 안정성없는 격변의 시대에 적극적인 태도로 현실에 참여하였다. 이때 그의 世界認識과 行動의 規範이 된 것은 '性理學的 義理觀'이다. 동계의 경우 '성리학적 의리관'은 그의 생애와 행동이 지닌 의미를 구명할 수 있는 관건이 되며, 동시에 그의 시세계를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동계 시세계의 의미구조를 온전히 밝히기 위해

시는 이러한 意識이 현실세계와의 끊임없는 충돌과 화해 속에서 어떻게 변모 발전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무질서하게 보이는 동계 시의 내면적 질서를 파악하고 시세계 전반을 체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동계의 시를 생애와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桐溪의 個人的 社會的 處地’를 검토한다. 이는 작가의 意識形成 背景과 意識變貌 樣相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상황과 그를 둘러싼 개인적 현실에서 어떠한 의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이 현실과의 충돌·화해를 통해 어떻게 변모하는지 밝히는 작업이다.

둘째, ‘桐溪의 詩와 意識’에 대하여 앞 항에서 밝혀진 예비적 검토를 바탕으로 실제 작품에서 의식의 변모를 추적하고 그의 시세계의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적 국면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해명한다. ‘1. 理想實現의 意志表明’은 주로 동계가 官界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작품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그 대응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동계의 정치적 견해와 道의 실천의지를 살펴본다. ‘2. 挫折과 鄉愁의 變奏’에서는 유배, 폄하 등의 정치적 좌절로 인한 것으로 동계의 인간적인 고뇌와 방황을 검토하고 ‘3. 自然에의 沈潛과 內面化’는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는 자리에서 보여 주는 意識의 변모를 알아본다.

이러한 시세계의 특징적 국면은 작가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1항은 官界生活, 2항은 流配生活, 3항은 隱遁生活과 대응된다. 이러한 三分法的인 構圖는 巨視的 觀點에서 작가의 생애와 작품 전체를 구명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물론 ‘意識의 변모’ 국면이 반드시 단계적이고 순차적이진 않다. 제 감정이 혼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이러한 정리는 설명상의 편의임을 미리 밝혀둔다. 이에 대한 텍스트는 民族文化推進會에서 발간한 『影印 標點 韓國文集叢刊』 75 (民族文化推

進會, 1991) 『桐溪集』으로 한다.¹⁾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계의 의식의 변모와 시세계가 照明될 때 같은 시기 지식인의 의식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朝鮮中期 文學樣相을 밝히는데 一助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동계 정은의 문학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양순필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제주도를 중심으로>²⁾에서 이다. 1982년에 쓰여진 이 논문은 '流配文學'이라는 범주 안에서 동계의 漢詩 일부를 다른 유배인들과 함께 처음으로 소개했다.

가장 유배적 성격이 짙은 …… 桐溪의 한시 13수 등 각 시대에 따라 유배된 11명의 유배인 漢詩 102수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전개키로 한다. …… 생활과 밀착된 인간, 사회, 자연의 세 영역 안에서 작가와의 對白的인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설정하였다. 1. 身上歎, 2. 戀君 ……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³⁾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시기에 창작된 일부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주제별로 분류하는 연구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한 연구과제가 濟州流配文學 전체를 조망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작가나 작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모형을 추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양교수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다른 유배인들과 함께 桐溪라는 작가와 그의 문학을 발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이 연구는 후학들에게 각 작가와 작품의 개별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으며, 그 연구방법 역시 후속연구에 영향을 주었

1) 『影印 標點 韓國文集叢刊』 75 (民族文化推進會, 1991). (이하 본고에서는 위의 책으로 출처를 밝히기로 한다.) 『桐溪集』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本集 권1: 詩. 권2: 記, 說, 序, 跋, 文, 祭文, 傳, 論, 書. 권3: 疏, 劄, 啓, 行狀. 권4: 碑, 銘, 墓碣, 墓誌. // 續集 권1: 詩, 賦, 書, 疏劄. 권2: 傳, 記, 序, 祭文, 行狀, 墓碣, 附錄. 권3: 附錄. // 附錄 권1: 行狀, 謚狀. 권2: 祭文, 挽詩, 年譜. 詩는 本集 권1과 續集 권1에 실려 있다. 그 형식은 5언절구(24수 - 4.4%), 7언절구(212수 - 38.5%), 5언율시(173수 - 31.4%), 7언율시(123수 - 22.3%), 고시·배율·기타(29수 - 3.3%)로 총 551수이다.

2) 건국대박사논문, 1982. 이에 이 논문의 자료를 보완하여 『濟州流配文學研究』(제주문화, 1992)라는 단행본을 냈는데, 동계의 한시 2수가 추가되었다.

3) 위의 책 133-134면.

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桐溪 鄭縑의 流配漢詩 研究>⁴⁾가 1986년에 발표된다. 이 논문은 '동계의 작품 중 유배적 성격이 뚜렷한 漢詩 60수를 유배 문학으로 규정하고 이를 憂時戀君, 白歎과 無常, 懷鄉·別恨과 憐憫, 脫俗隱遁과 自然閑情 등 네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한 작가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작품분석을 이루었다는데 있다. 또한 동계가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굴원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졌으며 그의 문학인 <楚辭>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아울러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성과는 연보를 통한 상세한 작가연대기의 작성이다. 이것은 동계의 생애와 작품을 검토하는 훌륭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나온 성과가 <濟州島 風土文學 研究 - 朝鮮時代 來島文人을 중심으로>⁵⁾다. 여기에서는 '濟州風土文學의 定義를 再規定하고 島内外 작가들의 제주풍토문학을 고찰하면서 제주풍토문학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연구목적에서 임제, 신헌수, 이원조 등과 함께 동계의 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本島人뿐만 아니라 流配人들의 경우도 제주인의 사상, 풍토 등을 문학의 제재로 삼은 경우라면 제주풍토문학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규정과 범위설정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풍토문학과 유배문학이 어떤 변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동계의 경우 제주에서 10년 간을 보냈지만 위리안치된 경우였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현지인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동계의 작품을 통해 제주의 풍토, 사상, 생활상 등을 고찰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러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流配人들의 문학을 풍토문학이라 규정한 것은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4) 高定佑,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1986).

5) 韓敬姬 (고려대 교육대학원, 1990).

이상의 연구는 모두가 연구대상을 유배기 문학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동계의 문학전체에 대한 검토가 없다. 동계의 생애에게 10년 간의 유배는 실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유배를 기점으로 의식이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문학의 경향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배기의 그의 문학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이자 동계문학 전체상과 그 변모양상을 온전히 밝혀야 할 이유가 된다. 유배기 문학은 동계 문학의 일부이며 동시에 고정된 문학세계가 아니라 변모과정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배라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상황에서 창작된 작품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때 동계의 문학 전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 작가의 특정한 경향의 작품이나 개별적인 작품은 그 작가의 전체 작품 테두리 안에서 조명될 때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동계 시세계의 전체적인 의미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의 내부에 작용하는 근본 동력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연구방법을 택함으로써 작품이 지닌 태도와 지향의 내적 관련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II. 桐溪의 個人的 社會的 處地

동계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개인적 사회적 처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작가의 意識形成 背景과 意識變貌 樣相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상황과 그를 둘러싼 개인적 현실에서 어떠한 의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이 끊임없는 현실과의 충돌·화해를 통해 어떻게 변모하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예비적 검토는 동계의 시세계의 특징적 국면을 구명하고, 그 의미를 해명하는데 유익하다. 더 나아가 당대 지식인들의 의식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동계가 살았던 조선중기(16세기 말 - 17세기 초)는 양반사회의 분열이 극적으로 노정된 시기다. 成宗代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士林의 대부분은 吉再의 學風을 이은 영남출신들이었다. 이들은 吉再의 高弟子인 金宗直이 출사한 것을 계기로 金宏弼·鄭汝昌·金駟孫 등이 그 뒤를 이임으로써 중앙정계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宣祖代에 이르러 정계의 주류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림에 의한 정국의 전환은 훈척계의 척결을 둘러싸고 異見이 노정되면서 分黨으로 발전한다.

宣祖代의 7년간에 걸친 倭亂으로 조선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倭亂 中明의 세력에서 벗어난 女眞族은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後金을 세우고 명을 압박한다. 이때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내정과 외교에서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朱子學的 士林政治가 부국강병에는 무력하다고 보고 北

人을 등용하여 정통 주자학을 비판하는 가운데 城池와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재건하고 국가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量田事業과 戶籍 정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외교에서는 왕조 교체의 정세를 간파하여 신중한 중립 외교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형제를 죽이고 폐모를 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로 마침내 仁祖反正(1623)이 일어난다. 반정 후 새로 집권세력이 된 西人은 親明 排金의 외교노선을 분명히 하여 後金과의 화평이 깨지고 丁卯胡亂, 丙子胡亂 등의 전란이 발발하게 된다.⁶⁾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동계는 성리학적 의리관에 철저한 삶을 살았다.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한 것은 그의 家系와 學統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桐溪 鄭蘊(1569:선조 2 - 1638:인조 16)은 草溪 鄭氏로서 安陰古縣 嶧洞里(경상남도 거창)에서 태어났다. 증조 玉堅은 道臣들의 친거로 司圃署別提를 제수받았으나 간신들이 권력을 장악하자 벼슬에서 물러났다. 부친 惟明은 葛川 林薰을 좇아 道를 얻어 孝友가 純備하고 학문이 精粹하였으나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에 은거하며 후학양성에 힘써 사림의 본보기가 되었다.⁷⁾ 이처럼 동계는 권력의 중심으로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학문을 즐기고 道義를 중시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동계는 부친이 嶧川書堂을 열자 날마다 書堂에 나가 학업을 닦았다. 부친은 四書를 바탕으로 하여 心經, 近思錄, 考亭文集, 性理大典 등에 이르기까지 깊이 연구를 하였다. 이 때 그가 한 공부는 과거를 위한 공부만은 아니었다.⁸⁾ 이때 남긴 詩를 통해 동계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세계를 알 수 있다.

柴扉閒向碧溪開 사립은 푸른 시내로 한가로이 열리고
松老庭空月自來 노송이 서있는 빈 뜰에 달이 찾아 온다

6) 邊太燮, 『韓國史通論』(三英社, 1987) 307-339면 참조.

7) 『桐溪集』年譜, 399-400면.

8) 年譜 402면.

獨對明窓舒卷秩 홀로 밝은 창에서 책을 펴니
斐然要就聖賢裁 고요히 성현 가르침에 나갈 수 있겠구나

시내에 가로막힌 사림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출입처가 아니다. 오히려 시내와 함께 세상과 뜰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뜰은 노송이 서있고 교교한 달빛만이 찾아오는 그윽한 세계이다. 그 속에서 성현의 뜻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그가 공부했던 성현의 세계에 대한 경도는 절대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린 아이답지 않은 이러한 절대정정의 추구는 후일 그의 강한 의리지향적 삶을 예견하기에 족할 것이다.

동계는 15세 때 처음으로 葛川을 만나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칭찬을 듣는다.⁹⁾ 이쯤 그는 이미 經史를 通貫하고 文詞가 날마다 나아진다는 칭송을 듣는다. 또한 정신과 얼굴색이 준정하고, 제행이 방정하고, 말이 간중하였고 종일 고추앉아 책을 읽으니 벗들이 다 공경하고 조심하였다.¹⁰⁾

부친은 평소 忠·信·篤·敬을 言行的 大節目으로 삼았고, 이를 자식들에게도 경계거리로 삼도록 하였다. 부친이 돌아간 후에도 동계는 아우에게 선군의 뜻을 독려한다.



옛날 내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선군께서 글을 써 경계로 삼으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네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는 반드시 忠·信·篤·경으로써 할 것이니 행동하기 전에 참고하고, 규범으로 삼아 늘 잊지 않는다면 오랑캐 땅에서도 다닐 수 있으니, 한 나라 안에서야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밤낮으로 생각하여도 이에 더 보탬 것이 없으니, 어찌 이것을 버리겠는가. 아! 우리 형제는 다함께 힘써야할 것이다.¹¹⁾

부친이 강조하는 忠·信·篤·敬은 人性修養의 가장 기초적인 규범이다.

9) 年譜 401면.

10) 年譜 402면. 癸未條(15세).

11) 年譜 402면. 昔余遊學于京 先君以書戒之曰 汝於言行之際 必以忠信篤敬 參前倚衡 念念不忘 則雖蠻貊可行 況於一國之中乎 惟此四字 實先君平日行己之人節目 教誨孤輩 欲其似之者 吁亦至矣 …… 孤輩夙夜思所以無忝者 舍此奚以哉 嗟我兄弟 蓋共勉旃.

또한 부친은 동계가 벼슬에 나가는 것을 보고 ‘寵愛을 받더라도 즐거워하지 말고 辱을 당하여도 슬퍼하지 말고, 患難을 당해서는 義理로써 決斷하여야 함’¹²⁾을 항상 강조하였다. 자신의 道을 급히 명예을 구하지 말고, 患難이 닥쳐도 義理를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자신의 뜻이 좌절되고 辱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 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난 동계가 인격을 도야하고, 實踐躬行·殺身成仁을 두려워 하지 않았음은 당연한 것이다.

동계의 학문하는 태도는 집요함 그것이었다.

7-8세에 처음 공부할 때 말을 더듬어 외울 수 없자, 복습하기가 괴로웠지만 종일 쉬지 않았다. 거의 외우자 갑자기 전보다 나아지면서 文理가 확 트였다. 역양부군이 이를 보고 “이 아이의 文理는 새벽창이 점점 밝아 오는 것 같다”고 했다.¹³⁾

어려서부터 괴로움을 참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강인함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고난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하게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동계는 퇴계 이황의 문인인 月川 趙穆, 寒岡 鄭述와 남명 조식의 제자인 來菴 鄭仁弘의 문하를 출입했다. 그는 退溪學派와 南冥學派을 두루 배운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 보면 그는 남명의 학문에 경도된 면모를 보여 준다. 특히 정인홍과는 남다른 사제의 관계를 맺는다. 그리하여 남명의 학문을 ‘專精敬義之學’¹⁴⁾이라고 규정하면서 그의 학문적 경향을 배운다. 동계의 삶과 그의 글을 살펴보면 남명의 實踐哲學이 곳곳에 녹아 있음을 볼 수 있다.

가) 진실로 경건하게 하여 안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하여 행동을 방정하게 한다

12) 年譜 400면. 及見文簡公立朝 不以寵辱爲欣戚 臨患難 斷以義理.

13) 年譜 401면. 七八歲間 初受學 口頗訥 不能成誦 伏習忍苦 終日不休 未幾記誦輒勝於前 文理廓開 驪陽府君稱之曰 此兒文理 譬如曉窓漸明.

14) <南冥唐先生學記類編後跋> 권2, 184면.

하면, 마음을 잡아두는 功은 홀로 있을 때에도 어둡지 않고, 성찰하는 뜻은 酬應의 즈에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밝게 하여 사욕의 가림의 없게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경계하여 안락하게 즐기는 싹을 없게 하시면 전하의 마음은 위로는 하늘과 통하고 전하의 덕은 위로는 하늘과 부합되어 이미 생긴 재앙도 변하여 상서로움이 되고 닥쳐올 번고도 없어져 복이 됩니다.¹⁵⁾

나) 부모를 섬기는데 정성스럽지 못하고 임금을 섬기는데 의롭지 못하면 스스로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니 마소와 같다. 나이가 어렸으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내 나이 오십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때이니, 이는 공자는 천명을 알았으며 거백옥은 살아온 인생의 잘못을 알았던 때다. 나는 비록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역시 하늘이 내린 것을 받아 이미 알고 있으니 어찌 이것을 닦지 않겠는가. 이것을 닦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敬일 따름이다. 의관은 반드시 가지런히 하고, 거처함은 반드시 공손하게 하고, 행동은 반드시 독실하게 하고, …… 사람이 (敬을 체득하면) 환란이 닥쳐도 본래의 바른 행동을 잃지 않고 안락하여도 교만하지 않는다.¹⁶⁾

가)에서는 敬과 義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 ‘天通’ ‘天合’ 즉 天賦의 本性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人慾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敬으로 심성을 수양하고 義로써 행동을 방정하게 해야 한다. 나)에서는 ‘天之明命’을 회복하는데는 敬이 있을 따름이라고 전제하고, 敬의 실천 항목을 나열하고, 이어 敬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동계의 사상은 反窮體驗과 持敬實行을 중시하며, 敬義를 높이 평가하는 남명의 학문에서 연원한다. 남명은 ‘마음이 밝은 것을 敬, 행동에 과단성이 있는 것을 義’(內明者敬 外斷者義)라고 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한 절제로 일관하고 不義와는 일체 타협하지 않는 義理哲學을 강조한다.

光海君이 즉위하자, 永昌大君을 옹립하려던 小北派는 숙청되고, 광해군을

15) <辭禮曹參判疏> 乙亥七月, 권3 222면. 誠能敬以直之於內 義以方之於外 操存之功 不昧於幽獨之中 省察之意 無怠於酬應之際 使此心常明 無私欲之蔽 此心常警 無逸豫之萌 則展下之心 上與天通 展下之德 上與天合 已生之災 轉而爲祥 將來之變 銷而爲福矣.

16) <元朝白齋箴> 并序, 권2 181면. 事親不誠 事君無義 自侮人侮 牛已馬已齒之尙少 容或不思 今馬五十 始衰之時 仲尼知命 伯玉知非 余雖下品 亦受天卑 既已知之 胡不顯謨 顯謨伊何 曰敬而已 衣冠必整 居處必恭 行必篤實 …… 人而以之患難 不失素履 以之安樂 不至驕恣.

지지하던 大北派 漢城判尹 鄭仁弘과 禮曹判書 李爾瞻 등이 정권을 장악한다. 이들은 정권 강화를 위해서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우선 광해군의 親兄 臨海君에게 ‘不軌를 도모하였다’는 죄목을 씌워 처형하고(1610), 永昌大君의 外舅 金梯男은 영창대군 翁립사건에 관련되었다고 누명을 씌워 살해했다.(1613) 이어 8세의 영창대군을 庶人으로 降等시켜 강화도로 옮기고 강화부사 鄭沆을 使噉하여 그를 蒸殺 했다.(1614) 여기에다 영창대군의 生母 金大妃도 逆謀에 內應했다는 죄목으로 幽閉하려 했다. 이때 동계는 副司直에 있으면서 이를 반대하는 <甲寅封事>를 올렸다.

전하의 仁聖의 德을 가지고도 불행히 人倫의 變을 만난 것입니다. …… 이제 의는 왕자입니다. 그가 마음과 행적이 이처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은 역적의 공초에서 나왔을 뿐 그를 당으로 翁립하려는 증거는 없으며 영창은 아는 것이 없는데 또한 어찌 역모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 마땅히 유사에 명하여 영창의 칭호를 追復하고 대군의 예로써 장사하며 애통해하는 교지를 내려서 사방에 전하의 지성과 우애를 분명히 알게 하면 위로는 하늘에 계신 선왕의 혼령을 위로할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미혹된 소문을 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비께서 비록 혹 전하를 자애하지 않으셔도 하여도 어찌 전하가 대비께 효도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전하께서 母子의 恩意를 보전하려면 속히 3인을 변방으로 추방하여 나라에 함께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참소하는 말이 없고 三綱五常이 宇宙에 밝게 드러 날 것입니다.
17)

殺弟廢母는 三綱五常에 어긋나는 人倫의 變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事後對策을 간한 것이다. 동계는 ‘삼강오상은 우주를 부지하는 기둥이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주춧돌로 사람에게 이것이 없으면 의관을 갖추어도 짐승이

17) <甲寅封事> 以 弼善 適 付 司直 時 二月三十日. 本集 권3, 203-205면. 以 殿下 仁聖之德 不幸 遭 人倫之變 …… 今 王 孫 一 王子 耳 心 迹 與 此 懸 殊 只 出 賊 招 未 嘗 有 擁 立 之 迹 矣 蒙 無 知 識 亦 安 有 謀 逆 之 心 乎 …… 宜 命 有 司 追 復 永 昌 之 號 葬 以 大 君 之 禮 又 下 哀 痛 之 教 使 四 方 臣 庶 曉 然 知 展 下 至 誠 友 愛 之 本 心 則 上 可 以 慰 先 王 在 天 之 靈 下 可 解 萬 民 視 聽 之 惑 …… 大 妃 雖 或 不 慈 於 展 下 展 下 安 得 不 盡 孝 於 大 妃 乎 …… 展 下 欲 全 母 子 之 恩 亟 取 三 人 者 投 諸 四 裔 不 與 同 中 國 然 後 讒 說 者 不 得 作 而 三 綱 五 常 昭 揭 於 宇 宙 矣.

요, 나라에 이것이 없으면 中窳에 있어도 오랑캐'18)라고 하여 삼강오상을 만물의 근원이라 주장한다. 또 그는 '옛날의 군자는 한 때의 이익을 헤아리지 않고 다만 義理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논하며 부지런히 삼가다가 인륜의 기강이 무너지거나 군자의 덕에 허물이 있으면 경계하고 권하여 이끌어 주는 자'19)이기 때문에 '人倫의 變'에 홀로 極言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 상소를 들은 大臣들 중에는 실색한 자도 있었고 혹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었다. 광해군은 크게 노하여 凶疏을 올린 承旨主納者를 파직하고 삼사에 동계의 按法을 청한다. 이에 三司에서는 동계의 절도안치를 청했지만 광해군은 '상소내용이 不道莫甚하여 大逆不道罪로 다스려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20) 이에 대해 右議政 鄭昌衍, 原任大臣 李元翼, 沈喜壽 등 大臣들이 반대하자 결국 상소를 올린지 4개월 뒤에 絶島 圍籬安置 流配刑21)에 선고된다.

이 사건은 동계의 삶의 지향과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윤리를 중시하고 의리를 실천하는 것은 동계가 현실을 바라보고, 이에 대응하는 준거가 된다. 즉 동계에게 윤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척도이고 의리는 현실에 대응하는 행동의 지침이다. 의리는 인식의 원리이라기 보다는 행위규범이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행동을 위한 의지와 용기는 의리실현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선비가 의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위난에 닥쳐도 의리실천을 회피한다면 의리는 그저 관념 속에만 남게 된다. '의리는 따르는 것이 옳은

18) 위와 같은 곳. 三綱五常者 扶持宇宙之棟幹 尊安生民之柱石 人而無此 冠裳而禽犢矣 國而無此 中窳而禽夷矣. (眞德秀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19) 위와 같은 곳. 古之君子 不許一時之利害 惟論義理之當否 惓惓以倫紀之或紊君德之或愆 告戒而勸導之者.

20) 許穆 <桐溪先生行狀> 附錄 권1, 371-372면. 疏出 莫不失色 或有感激流涕者 廢主大怒 下政院以凶疏不沮却上達 承旨主納者先罷 而餘竝推考 於是三司請安置絶島 廢主曰 …… 今鄭繼上疏 其言大不道 而安置科罪 無君護黨如是其矣.

21) 年譜 408면. 七月辛亥 再供 光海特命大靜安置.

것'이라는 이성적 판단만으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며 신념과 용기가 동반됨으로써 비로소 강인한 結晶으로 나타난다.²²⁾

동계는 仁祖反正을 '殺同氣 廢母妃'로 무너진 倫紀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이러한 현실인식으로 유배 후 다시 벼슬에 오르게 된다. 반정 후 동계는 유배에서 석방되고 이어 司諫院 獻納에 제수된다.²³⁾ 이때 동계는 스승 정인홍을 의리보다는 인간적인 정을 앞세워 용서해줄 것을 청한다. 정인홍은 南冥의 수제자로 임란 때 영남의병장이라는 칭호를 받아 많은 戰功을 세웠다. 그는 선조 초 黨派가 東西로 양분되자 東人편에 섰으며, 東人이 다시 鄭汝立獄事를 계기로 南北으로 분립되자 北人의 영수가 되어 李山海, 李爾瞻 등과 광해군을 적극 지지하였다. 강경한 지조, 剛戾한 성품, 지나치게 敬義를 내세우는 행동으로 좌우충돌하기도 하였다.²⁴⁾ 1607년(선조 40년) 정인홍은 왕위 계승를 둘러싸고 의혹을 일으키는 柳永慶 등 小北派를 탄핵하다 오히려 유배를 가게 된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감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초야의 선비였던 동계는 영남 선비들과 상경하여 상소를 올려 '다른 사람들이 사주하여 내암이 公論을 잘못 의탁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스승을 변호한다.²⁵⁾ 또 인조반정 후 광해조의 奸臣과 凶黨들이 처형될 때, 동계는 스승의 처형에 앞서 司諫院 獻納 제수에 辭疏를 내며 스승을 救命하려고 한다. 벼슬에 나갈 수 없는 하나의 이유로 師弟 관계를 들고 있다.²⁶⁾ 스승이 죄를 지어 처형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자가 조정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22) 琴章泰, 「義理想과 선비精神」, 『韓國思想의 深層研究』(宇宙, 1986) 참고.

23) 年譜 411면, 『仁祖實錄』 권1, 元年 癸亥 三月.

24) 韓敬姬, 「濟州島 風土文學 研究-朝鮮時代 來島文人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0) 40-41면 참고.

裴宗鎬, 『韓國儒學의 哲學的 展開 續』(圓光대 출판국, 1989).

조명기 외 33인 저, 『韓國思想의 深層研究』(宇石, 1986).

25) 年譜 403면. 戊申年. 至於爲人指嗾 假托公論 非所疑也.

26) <癸亥辭疏> 木集 권3, 206-207면.

신은 인홍에게 책을 잡고 수업한 일은 없으나 스승과 제자의 분수가 나뉘진지는 오래입니다. 인홍은 계축년 이래로는 논의가 어긋나서 마치 다른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으며 신 또한 부끄러워 하는 바입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명분이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는 다 그가 80세로 늙은 뒤의 일입니다. 가깝게는 비슷한 무리들이 죄를 떠넘긴 것이고, 멀게는 이침과 찬남 무리의 어리석은 회롱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둡고 늙어 속임을 당한 것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 인홍의 죄는 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극형에 처하는데 이르러 연좌, 적몰의 율을 이침, 찬남의 무리와 함께 시행을 한다면 古經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전하의 聖德을 손상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 스승과 제자는 의리로서 맺어진 것이니 생각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끊을 수 있으나, 남들이 다들 臣을 인홍의 門生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臣이 비록 강한 얼굴로 조정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物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²⁷⁾

계축년 동계가 <甲寅封事>를 올리자 정인홍은 '繼의 말이 망령되고 부도한 사실은 신들의 옥당 자차에서 속속들이 논파하였으므로, 신은 다시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열거한 바 있는 정은의 죄는 만 번 죽어 아깝지 않으며 이는 신에게도 죄가 있습니다'라고 처형을 주장하였다.²⁸⁾ 동계는 이처럼 임해군·영창대군 옥사에 대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고 자신의 처형을 주장했던 정인홍을 여전히 스승으로 예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계의 깊은 의리심과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다.

다음해 三司에서 仁城君의 처벌을 주장하자 太司諫이었던 동계는 '설령 역모가 드러났다고 하여도 閹門에서는 은혜로써 의리를 덮어야 옳다'는 善恩說을 주장한다.²⁹⁾ 그러나 많은 대신들이 반대하는 議論이 일어나자, <甲子啓疏>를

27) 위와 같은 곳. 臣於仁弘 雖無執卷受業之事 而師生之分則定已久矣 自癸丑以後 論議之顛錯 如出別人之手 臣亦愧之 恥有師生之名 而此皆八十耄荒之後也 近則沂潔滄滄之徒 縱與嫁禍 遠則爾瞻繼男之輩 愚弄媒孽 昏耄見欺之狀 豈不可哀乎 …… 仁弘之罪 雖在罔赦 而至於施之極刑 緣坐籍沒之律 與爾瞻繼南輩一體施行 則非但有違於古經 毋乃或傷於聖上 新服之初 務從寬典之盛德乎 師生以義合 不可則絕 而人之指日者 必以臣爲仁弘之門生 臣雖欲強顏立朝 其於物議 何哉.

28) <左議政鄭仁弘劄子> 『大東野承』 제41권 光海朝日記 2 甲寅年 3月 15日. 謬妄不道之實 臣等玉堂劄子論破盡其底蘊 臣不欲更置牙頰間 有所條列 繼之罪 萬死無惜也 臣於此亦有罪焉 伏竣誅戮.

올리고 歸鄉한다. 이 상소에서는 인성군을 처벌하는 것은 광해군의 殺弟와 같다고 규정하고 다시 전은설을 주장한다.

(인성군을 죽이는 것은) 앞 수레가 이미 넘어 졌는데 뒤에 오는 수레가 경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삼아 앞 뒤의 일을 비교해보면 아우와 숙부 누구는 중하고 누구는 중하지 않겠습니까. 영창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역모설이) 적의 입에서 나왔고, 인성 또한 증거가 없는데 적의 공초에서 나왔으니 누구는 원통하고 누구는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영창을 죽인 것이나 지금 인성의 죄를 청하는 것은 과연 누구 옳고 누구 그른 것이겠습니까. 만약 義理의 當否와 形跡의 虛實을 묻지 않는다면 하나 같이 賊이라 할 수 있습니다. …… 倫紀가 밝으면 종사가 안정되고 君德을 얻으면 종사가 안정됩니다. 그렇지 않고 倫紀를 폐하고 덕을 잃어 버리면 종사가 위태로워 망합니다. …… 폐조가 비록 혼란한 정치를 했다하지만 同氣를 죽이고 母妃를 폐하지 않았다면 전하께서 至仁 盛德하다하여도 하루 아침에 임금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³⁰⁾

이 상소문 역시 동계의 義理之心에 입각한 정치규범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종사의 大計가 倫紀를 밝히고, 君德을 얻는데 있다는 입장은 禮治·德治에 의한 王道 혹은 仁政을 이상으로 삼는 春秋大義의 義理觀에 합치되는 것이다. 禮治·德治는 선한 本性에 따르는 다스림으로 군주가 스스로 潛心體道할 때 가능한 것이다. <甲寅封事>, <甲子啓疏> 등에서 파악되는 이러한 동계의 정치관은 道學派의 理想政治와 부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는 忠諫을 가장 훌륭한 충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 無道 不德한 임금을 바르게 하여 道를 세우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 참다운 신하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의 뜻이 받아 드러지지 않고 결국 인조가 인성군의 白處를 명하자 辭職하고 귀향한다.

29) 年譜 412면. 先生曰 設或逆謀已著 閨門之內 以恩揜義 可也.

許穆 <桐溪先生行狀> 附錄 권1, 373면. 冬爲大司諫 時有上變者 諸囚或引仁城君 亦知其謀 於是三司請法 公執全恩之論.

30) <甲子啓疏> 本集 권3, 207-208면. 前車既覆 後車不戒 試以前後較之 弟與叔孰重孰輕 永昌之蒙無知識 而出於賊口 仁城之迹無形似 而出於賊招孰冤孰不冤乎 曩時之請殺永昌 今日之請罪仁城 果孰是孰非乎 若不問義理之當否 形迹之虛實 而一以賊招而已乎 …… 倫紀明則宗社安 君德得則宗社安 不然 而敗倫失德 則宗社危亡 …… 若使廢朝雖有昏亂之政 而不殺回氣 不廢母妃 則雖以殿下之至仁盛德 不能一朝居此位也.

동계의 귀향은 身病을 병자하였지만 사실은 時議가 자신의 신념과 어긋났기 때문이다.

옛날에 물러나는 것은 반드시 크게 한가로운 해를 기다리지 않았으니 질병이 있으면 물러나고, 時議을 용납할 수 없으면 물러났습니다. …… 옛날 사람들은 이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그 물러남이 빠르지 못함을 근심하였는데, 신은 두가지를 겸하여 있습니다.³¹⁾

동계가 택한 退去는 道義를 실천하기 위한 또 다른 정치적 대응이다. 몸을 더럽히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동계처럼 여러 차례 정치적 시련을 당했던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進退이 명확했던 것은 확고한 정치적 신념임에 분명하다. 여기에서 동계의 근본적인 관심이 義理의 實現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進이든 退이든 모두 정치적 목표를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삶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그가 괴로웠던 것은 당대의 정치현실이 넓은 의미에서 자기완성을 허용하지 않으려하는 것이었다.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동계는 강화도가 함락되고 항복이 결정되자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수치를 참을 수 없다'고 하며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는 그 해 3월 들 것에 실려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봄이 되자 덕유산 기슭에 있는 某里³²⁾에 은거 한다. 그곳에 초가를 지어 鳩巢라 하고,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다 생을 마감한다.(인조 19년 6월, 73세) 그는 은거를 하면서도 세상에 살아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다. 많은 이름의 마을을 두고 하필 某里라 칭하고 그 곳에 은거한 것은 '羞惡之心' 때문이었다.

31) <辭禮曹參判疏> 乙亥七月 本集 권3, 222면. 古之退去者 不必待大閑之年也 身有疾病則退去 不容於時議則退去 …… 古之人 有一於斯 猶恐其去之不速 況臣之兼有而疊逢之乎.

32) 某里는 동계가 지은 이름으로 덕유산 기슭의 마을이다.

성은을 탐내고 녹을 훔쳐 나아가는 것만을 알고 물러남을 알지 못했으며, 말은 적절할 때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행동은 남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였으며 나이도 이미 많고 병이 들었다. 비로소 세상에서 버림 받았음을 알고 부득이 물러난 것이니, 만약 羞里·愧洞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진실로 내가 가야 할 곳이지만, 그런 곳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차선책을 생각하여 이 마을에 들어 왔으니 無何有之郷이로구나.³³⁾

이와 같이 동계는 正道 正義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實踐躬行, 殺身成仁한 의리형 인간이므로 탄핵, 좌천, 유배 등의 정치적 시련을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시련은 자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부터의 추방이며, 동시에 자아의 가치규범과 질서에 대한 신념의 좌절이기도하다.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절망, 회의, 좌절 등의 감정에 젖어 고독감에 시달리거나 극악하고 부패한 세계와 대립적 위치에 있는 고향을 그리게 된다. 세계의 無道함과 無秩序를 수용 혹은 방임한다면 安樂할 수 있지만, 正道 正義의 理想이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는 한 失意에 빠져 절망, 회의의 감정을 유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동계는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한층 굳건히 한다.

동계가 살았던 시대상황과 개인적 현실을 살펴볼 때 그는 안정성 없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다. 그는 정치적 혼란기에 자아의 세계인식과 행위에 準據한 규범과 질서가 주는 가치의 틀이 흔들릴 때마다 直言과 辭疏를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다. 이와 아울러 유의해야 할 것은 그의 행동이 지닌 내면적 의미이다. 동계에게 있어서 直言 辭疏는 無道한 세계를 바로 잡으려는 행위인 동시에, 그러한 세계 속에서 自己定位를 확인하려는 행위이다.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무도한 때에 그는 正道 正義 實現이라는 大義

33) 年譜 428면. <某里鳩巢記> 권2, 177면. 叨恩竊祿 知進而不知退 言無補於時 行不信於人 年既老矣 身又病矣 始知見棄於世 不得已而退 若有羞里愧洞之稱云者 則眞我之所當處 而未嘗有聞而知之者 故思其次而入此洞 其無何有之郷乎.

앞에 스스로를 던진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直言, 좌천, 탄핵, 유배의 시련을 포함한 행동 속에서 삶의 확인과 자기구제를 기도하였던 것이다.



Ⅲ. 桐溪의 詩와 意識

여기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동계의 생애에 주목하면서 「桐溪集」에 실려 있는 총 551首³⁴⁾의 漢詩를 분석하여 그의 意識의 變貌 局面을 다음과 같이 추적해보기로 한다.

1. 理想實現의 表明 : 현실참여 의지, 道의 실천의지
2. 挫折과 鄉愁의 變奏 : 정치적 좌절과 고뇌, 그리고 그 극복의지
3. 自然에의 沈潛과 內面化 : 靜閑·淸明한 세계의 추구, 脫俗的 境地

1항의 작품에서는 진실의 관점에서 無道한 세계에 대항하는 동계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작품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그 대응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동계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과 그 실행을 조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항에서는 정치적 대결에서 패배한 인물의 고뇌를 천착해보고자 한다. 3항에서는 인조반정 후 귀양살이에서 풀려났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또 한번의 좌절을 겪은 동계가 만년에 독서와 자연에의 침잠을 통해 天理를 발견하고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모습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식의 국면은 동계가 처했던 정치적 상황과 대체적으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1항은 官界生活, 2항은 流配生活, 3항은 隱遁生活과 대응되는 것이다. 물론 意識의 변모를 추적해보면 변화 국면이 반드시 단계적이고

34) 시는 本集 권1과 續集 권1에 실려 있다.

순차적이지만은 않다. 그 사이를 넘나드는 제 감정의 혼조를 인정하고 意識의 指向을 추적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理想實現의 表明

이 項의 시들은 몇 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배 전 정치 현실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된다.³⁵⁾ 여기에서는 동계의 군신관계에서의 윤리 특히 忠에 대한 그의 생각과 실천태도를 밝혀보기로 한다. 이어 이러한 정치적 견해가 실제 정치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고찰해 본다. 이러한 작업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깊숙히 개입했던 동계의 삶을 이해하는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忠의 참된 도덕적 의미는 一者가 他者에 대해 지닌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他者에 대한 의무를 遂行한다는 데 있다. 忠의 반대 개념은 變節이다. 변절은 有利한 때에 約束한 타자에 대한 의무를 不利할 때는 내던지져 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利를 따르지 않고 義를 따르는 行爲가 忠이 된다. 따라서 平常時에는 충이 문제되지 않는다. 逆境 즉 맨 처음 맺어진 他者와의 관계보다 더 유리한 사정이 나타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도 애초에 맺어진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을 때 충이 실천되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충의 실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유학자도 當爲性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충의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여러 인물의 故事을 통해 동계가 생각하는 충의 실체와 그 실천방법을 살펴 보고 거기서 그가 이상으로 삼은

35) 대부분의 시가 제작연도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人名, 地名, 詩題, 시의 분위기 등을 통해 추측한 것이다

36) 李明賢, 「韓國의 傳統的 德目에 관한 現代의 研究, 『哲學思想의 諸問題』(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충'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이어 이러한 관념 속의 충이 정치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구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단서로 제일 먼저 주목되는 것은 여망 즉 강태공과 백이다. 동계의 태공에 대한 평가에는 독특한 면이 있다. 태공은 殷나라 사람으로 紂王을 섬겼는데, 紂王이 폭악하고 無道하여 天命을 저버리자 武王을 도와 옛 임금을 정벌하였다. 천명을 어겨 德을 기르지 않고, 백성을 피폐하게 하는 임금은 이미 임금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새로운 임금을 섬긴 것이다. 임금은 天意를 대행하는 天子이기 때문에 백성의 부모로 善政을 베풀고 백성의 스승으로서 백성을 敎導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임금은 항상 德을 기르고 그 행하는 바가 義에 적합해야 한다. 德도 없도 義도 없는 임금이라면 萬民을 위해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태공의 충이다.

忠은 다양한 면모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는 처음 맺었던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끝까지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임금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忠臣으로 표상된다. 백이가 이러한 範型이 될 것이다. 그는 周나라 武王이 폭군인 殷나라의 紂王을 정벌할 때 그것이 신하로서 임금을 정벌하는 일종의 반역이라고 하면서 만류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는 태공과는 정반대적인 충을 실천한 인물이라 할 것이다.

동계의 시에는 이러한 상반되는 인물들이 나란히 나타난다.

| | |
|------------------------|-----------------------|
| 八百諸侯九亂臣 | 팔백제후와 아홉난신 |
| 鷹揚牧野豈無人 | 목야에서 날렸는데 어찌 사람이 없으리오 |
| 天生呂望非他意 | 하늘이 여망을 내림은 다른 뜻이 아니고 |
| 只爲扶持二子身 ³⁷⁾ | 다만 두 몸을 붙들기 위함이니 |

37) <呂望> 本集 권1, 147면.

은나라 정벌에서 태공은 전쟁의 준비에서부터 수행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동계는 구백 제후와 아홉 난신이 있었는데 태공 아니면 사람이 없었겠느냐고 하면서 ‘다만 두 몸을 붙들기 위’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태공은 백이 숙제를 세상에서 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차적인 역할만을 담당할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제목과 달리 태공보다는 백이 숙제가 더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해석된다.

| | |
|---------|--------------------------|
| 隨處童童有綠陰 | 여기저기 녹음이 무성한데 |
| 如何深入峽中吟 | 어이하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왔는가 |
| 應嫌塵世多喧擾 | 숙세의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것이니 |
| 來和幽人物外音 | 숨어사는 사람이 세속 벗어난 노래와 어울리네 |

| | |
|------------------------|--------------------------------|
| 前身定是伯夷清 | 전생은 분명히 백이처럼 청렴하였으리니 |
| 蛻却當年餓死形 | 허물을 벗을 때는 굶어 죽은 모양이네 |
| 羞向周天隨日影 | 주나라 하늘을 향하여 해 그림자를 따르는 것이 부끄러워 |
| 綠陰深處抱柯鳴 ³⁸⁾ | 녹음이 짙은 곳 나뭇가지를 안고 운다. |

백이에 대한 동계의 관심은 節義를 지킨 실천에 모아진다. ‘節義를 지킨다’는 것은 지조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백이는 무왕이 주왕을 친 것은 신하로서 그 의리를 지키지 못한 행위라 생각한다. 무왕이 父王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전쟁을 하려는 것은 孝에 어긋나며, 신하로서 군주를 弑害하려는 것은 仁에 어긋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의 결과 孝·仁의 道가 무너진 주나라에 남아 몸을 더럽힐 수는 없기에 백이는 수양산으로 은거하여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信義를 지킨 것이다.³⁹⁾ 이는 자신의 志操를 지키기 위한 내면의 투쟁이며, 굶힐 줄 모르는 志氣이다. 이러한 인물에 대

38) <山中聞蟬> 2首 續集 권1, 290면.

39) ㉠ <太公扶伯夷論> 本集 권2, 192 - 193면. ㉡ <箕子受封朝鮮> 本集 권2, 193-194면.

한 동계의 경도는 그가 理想으로 삼은 삶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동계는 백이의 ‘不事二君’에 동의한다기 보다는 ‘君臣有義’의 대전제 안에서 백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時議에 附屬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집중된다.

동계는 백이의 확고한 신념과 그에 근거한 실천을 배우고 있다. 유학자에게 隱居는 정치권을 벗어난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선다. 은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대응양상으로 물러나야 할 정확한 때에 물러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정치인이다. 물론 물러나야 할 때란 時議가 尙當하지 않거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받아 드려지지 않을 경우이다. 은거의 공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자연을 떠올리는 것은 은거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게 해준다. 특히 道學者들은 도학의 근원인 本然之性이 <淸山>과 <流水>로 대표되는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한다. 즉 자연은 卽物的인 존재가 아니라 추상적인 도의 구현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 속에서의 은거는 독서와 함께 또 다른 심성수양의 방법이 된다. 그 수양의 과정에서 영원히 산림처사로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宦路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明明德’과 ‘新民’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 혹은 정치현실과 현실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다. 동계는 進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었으며,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백이의 물러남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계의 태공에 대한 평가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 | |
|-------|---------------------------|
| 問葵花 | 해바라기에게 묻는다 |
| 托根何僻荒 | 어이하여 궁벽하고 황량한 곳에 뿌리를 내렸는가 |
| 年光已遲暮 | 세월이 이미 저물었으니 |
| 何日是傾陽 | 어느 날에 태양을 향하겠는가 |
| 葵花答 | 해바라기가 대답한다 |
| 早晚各有時 | 이르고 늦음은 각기 때가 있는 법이니 |
| 八十揚牧野 | 팔십에 목야에서 떨치던 게 |

君知是爲誰⁴⁰⁾ 그대는 아는가, 그가 누구인가를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시는 묘한 이중의 해석이 가능하다. 즉 해바라기에게 묻는 앞 부분은 자신이 어찌하여 궁벽하고 황량한 곳으로 귀양오게 되었는지를 자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이미 저물었으니 / 어느 날에 태양을 향하겠는가’ 하는 말은 자신의 절망감의 표출인 것 같다.

그러나 동계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팔십이 넘어 목야에서 떨쳤던 강태공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달랜다. ‘그대는 아는가, 그가 누구인가를’이라는 반문은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태공에 대한 찬탄이 얽혀 있는 것이다.

義에는 一時의 義와 萬世의 義가 있다. 군사를 일으켜 죄인을 정벌하여 재앙을 일시에 구제한 것은 태공의 義이고, 彝倫을 바르게 잡아 명분을 만세에 정립한 것은 백이의 義이다. 태공은 임금을 보좌하는 인재로서 몸은 帝師이고 직책은 충성을 다하는데 있었으니, 한 때라도 임금이 없는 禍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세력이 신장된 목야의 장수들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만세에 임금이 없음은 더욱 두려워할만한 것이고, 彝倫이 무너짐은 더욱 근심하는 바이니 태공의 마음은 곧 백이의 마음이고 태공의 義는 곧 백이의 義이다. 一時之義를 행하면서 萬世之義를 생각한 자는 태공이니 태공의 義는 두가지를 온전히 한 것이고, 그를 붙든 이유는 특별히 백이를 붙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스스로를 붙든 것이다.⁴¹⁾

태공이 폭군을 내몰고 무왕을 섬겨 새나라를 세운 것은 임금을 모시고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결단이다. 그는 왕을 좇아낸 것이 아니라 천명을 어기는

40) <問葵花> 續集 권1, 301면.

41) <太公扶百夷論> 本集 권 2, 193면. 義有一時之義 有萬世之義 與師伐罪 濟水火於一時者 太公之義也 扶植彝倫 定名分於萬世者 伯夷之義也 太公 王佐之才也 身爲帝師 職在匪窮 則一時無君之禍 不可不慮矣 鷹揚牧野之師 不可不與矣 而萬世之無君 尤所當懼也 彝倫之墮地 尤所當憂也 則太公之心 卽伯夷之心也 太公之義 卽伯夷之義也 行一時之義 而心萬世之義者 太公 則太公之義 可謂兩全 而其所以扶之者 非特扶伯夷也 實所以自扶矣.

죄인을 내쫓은 것이다. 이것이 태공이 선택한 의리다. 이러한 태공의 현실인식과 대응은 백이의 그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태공은 백이를 보호함으로써 백이가 지키려한 萬世의 義까지 붙든 셈이다. 태공은 백이가 택한 충의 방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한다'는 萬世의 義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태공에 대한 동계의 평가다.

태공은 백이를 節義를 지킨 義士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백이를 붙든 것이고, 이것은 백이의 몸을 붙든 것이 아니고 그 '義'를 붙든 것이다. 백이의 몸은 필부의 몸이지만 萬歲의 義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백이의 몸을 붙든 것이다. 서산에서 고사리를 캐어 주나라 녹을 먹지 않았기에 그 절개가 더욱 굳어지고, 그 의리가 더욱 높아졌다. 天下綱常이 타락하는 것을 막았으니 군신의 명분을 문란하지 않게 지킨 것이다. 이러한 인물을 붙들었기 때문에 태공의 공은 더욱 커진다. 백이가 무왕에게 그르다고 간언한 것은 만세에 임금이 없어질까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신하로써 임금을 정벌하는 것은 천하의 大變이다. 더욱이 무왕같은 천하의 賢人이 임금을 정벌한다면 후세 사람들에게 신하로서 임금을 정벌할 수 있다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백이의 義가 만세에 행하여져 亂臣賊子가 함부로 임금을 정벌할 수 없게 된다. 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興起하지 않을 수 없고, 완악한 자는 청렴해지고, 유약한 자는 뜻을 세우니 태공이 붙든 것은 다만 그 義가 아니고 천하 국가를 부지한 것이다. 태공은 한번 손을 들어 그 義를 붙들고 한번 그 義를 붙들어 천하국가를 부지하였으니, 태공의 '扶之之功'은 백이의 '叩馬之義'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태공의 충이나 백이의 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동계는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다른 처신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계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백이보다는 태공식의 충을 선택한

다. 동계는 태공이 주왕을 정벌하는 것을 ‘一時之義’를 지키기 위한 편법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계는 이것이 부득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는 인조반정 후 곧바로 관계에 나간다. 동계가 볼 때 광해군은 그가 이룩한 治績이야 어찌되었건 ‘殺弟廢母’을 자행한 無道한 暴君이다. 그렇기 때문에 反正을 통해서라도 無道한 임금을 징치하는 것이 신하로서 의리를 다하는 것이다.

| | |
|------------------------|-----------------------------|
| 人臣忠愛無生死 | 신하의 충애에는 생사가 없으니 |
| 尸諫猶能悟主聰 | 죽은 몸으로까지 충간하여 임금의 총명함을 깨우치네 |
| 扶眼數言誠憤懣 | 눈을 도려 내라는 몇마디는 분발토록 하려는 것인데 |
| 隨夷誰使入江中 ⁴²⁾ | 누가 치이를 강으로 떨어뜨렸나 |

관계에 나간 동계에게 주어진 길은 그러나 태공식의 선택은 불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는 諫을 최우선하여 伍子胥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伍子胥는 楚나라 卞王의 태자 健의 少傅였던 伍奢의 아들이다. 건이 참언을 받았는데 그 禍가 오사에게까지 미치자 오사의 아들 伍尙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잡히고 오상의 아우인 오자서는 뱃로 망명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그 후 계속 오왕을 섬기며 월과의 화친을 적극 반대한다. 이때 오의 太宰 백비의 참언으로 오왕은 오자서에게 屬鏤之劍을 내려 자결을 명한다. 이에 오자서는 ‘간악한 신하 백비가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왕께서는 도리어 나를 주살하는구나’라고 탄식하고 이어 家臣에게 ‘반드시 내 무덤 위에 가래나무를 심어 오왕의 敗死한 시체를 넣을 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 눈을 도려 내어 동문 위에 걸면 월군이 쳐들어와 오가 망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며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다.

42) <伍子胥> 本集 권1, 147면.

무덤 위에 오왕의 관을 짊 가래나무를 심고,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 동문 위에 눈을 걸어 두라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임금에게 차마 하기 어려운 저주스런 악담일 수 있다. 그러나 동계는 이러한 오자서의 말과 행동을 ‘尸諫’이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자신의 죽음 자체를 원통해 한다기보다는 간신의 감언으로 자신의 諫이 묵살되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다.

오왕은 오자서의 말을 듣고 시체를 말가죽 주머니에 넣어 長江에 던진다. 이에 대해 동계는 ‘누가 치이를 강으로 떨어 뜨렸나’하며, 直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 시체까지 강물에 던지도록 한 오왕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인물에 대한 경도는 동계가 준거로 삼고 있는 삶과 일치한다. 신하라면 충간으로써 정치를 바로 잡고, 소인배 간신배에 의해 임금의 총명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임금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直言을 올리는 것이 신하의 마땅한 도리이다. 충의 실천항목으로 諫言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임금이 임금다워지기 위해서는 임금 스스로 덕을 쌓고 도를 행하려 노력해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신하의 몫이다. 적어도 동계가 생각하는 신하의 직분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동계의 일생을 살펴 볼 때 정치적 시련을 예상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여러 차례 諫言을 올리는 것으로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동계가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諫은 어떤 것이었을까.

諫之諫과 不諫之諫이 있다. 諫之諫은 입으로써 하고, 不諫之諫은 마음으로써 하는 것이다. 임금이 싫어하는 안색이 있는데도 다투면서 허물을 바로잡고 잘못됨을 고치는 것은 입으로써 간하는 것이고, 먼저 기미를 살피고 모르는 사이에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으로써 간하는 것이다.⁴³⁾

43) <張良不諫易太子論> 권2, 190면. 有諫之諫焉 有不諫之諫焉 諫之諫者 以口 不諫之諫者

충간을 신하로서의 절대적인 도리로 생각하는만큼 동계는 간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선 간을 口諫과 心諫으로 나눈다. 임금의 뜻을 거슬리면서 면전에서 간언을 올리는 것은 口諫이요, 일의 기미를 미리 알고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心諫이다. 이 두가지 간의 방법은 상반되는 태도는 아니다. 마음에 匡正하려는 뜻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간이 없으면 구간도 있을 수 없다. 마음으로 간하던 것이 말로 나타나면 그 간은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구간이 성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간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간은 내 간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내 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간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큰 일이 된다. 동계는 이중에서 心諫이 善諫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물며 입으로 하는 諫은 그 간이 위태롭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쉽지 않고, 心諫은 그 간이 은미하지만 사람들이 듣기에 어렵지 않음에야. 그러니 신하가 그 임금에게 간하는 것을 입으로 하겠는가. 입으로써 하면 위태로운 일을 구제하지 못하고 천하에 화가 끼치고 마음으로써 하면 드러난 무너진 형세를 구제하여 나라를 편안히 할 수 있으니, 입으로 간하지 않고 마음으로 간하는 것이 어찌 임금에게 훌륭한 간이 아니겠는가.⁴⁴⁾

간을 구간과 심간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심간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일생을 강직한 충간으로 보냈던 동계는 자신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심간보다는 구간으로 일생을 보낸 셈이다.

以心 犯顏固諍 繩愆糾繆者 諫之以口者也 先事察機暗移君心者 諫之以心者也.
44) 위와 같은 곳. 況諫之以口者 其諫也危 而人之從之也不易 諫之以心者 其諫也微 而人之聽之也不難 然則人臣之諫其君也 其將以口乎 以口則未揅既危之事 而貽禍於天下 以心則可救垂敗之勢 而措安於國家 則不諫於口而諫於心者 茲豈非善諫君者也.

이상의 검토에서 볼 때 동계의 충은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면모를 지닌다. 임금의 잘못은 가차없이 지적하며 이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 | |
|------------------------|-----------------------|
| 老癯疎冷遇風霜 | 늦 해바라기 서리 맞아 춥고 |
| 枝葉摧殘尙抱香 | 이파리 떨어져도 오히려 향기를 품는구나 |
| 莫遣孤根容易拔 | 외로운 뿌리 가버이 뽑지 말것이니 |
| 赤心曾是喜傾陽 ⁴⁵⁾ | 붉은 마음은 태양을 향한 기쁨이라네 |

어떤 정치적 시련 속에서도 '忠節'을 지키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꽃을 피우는 현상을 신하가 임금에 대한 忠節로 비유한다. 늦 해바라기는 늦게 벼슬길에 오른 자신을 비견 것이다. '風霜'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며 그것을 이기고 향기를 품은 해바라기는 자신의 감정이입이다. '風霜'은 주로 정치적 시련과 패배를 의미하며 그 결과 '疎冷' '枝葉摧殘'은 한미해진 자신의 위상이다. 그러나 향기를 품음은 자신의 충절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외부의 저항이 어찌되었건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가리라는 다짐이다. '孤根'으로 온 몸을 지탱하고 있어도 그 마음만은 태양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도의 유일한 실현공간을 정치현장이라고 할 때, 그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정치현실에 대한 거부나 무관심을 스스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平生用意雪霜間 | 평생 눈서리에 마음을 두어 |
| 不願條枝綠且蔓 | 푸르고 아름다운 가지 바라지 않았네 |
| 寧似直絃沿道死 | 곧은 현처럼, 차라리 道를 따르다 죽을지언정 |
| 恥如鉤曲得高官 ⁴⁶⁾ | 몸을 굽혀 높은 지위를 얻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

자신의 뜻을 굽혀 높은 지위, 명예, 부귀를 얻는 것보다 눈서리같은 기상으로 도를 따르겠다는 인생철학이다. 동계의 관심은 道와 그 實現에 있으며, 그

45) <詠殘癯> 本集 권1, 144면.

46) <述懷> 2首 中 1首 本集 권1, 143면.

실천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한다는 용기와 결단을 보게 된다. 이러한 강인한 신념과 실천성은 家系와 學統을 통해 어려서부터 체득된 것이다. 어떤 유학자도 도의 실제와 그 실현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동계처럼 실천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가 섰던 자리에서 이러한 가치관의 포백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결코 空言이 아니다. 이러한 신념은 죽을 때까지 그를 지탱해주던 價値였을 것이다. 末年에 보여 주는 유연함과 초탈함 역시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라기 보다는 연륜에 의한 의식의 성숙함으로 이해해야 한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道를 따른다는 의지는 많은 詩篇에서 찾을 수 있다.

生逢此世苦艱危 이 세상에 태어나 고난과 위태로움을 겪어
欲濟艱危奈病衰⁴⁷⁾ 고난과 위태로움 구제하느라 병들고 늙는구나

補袞誠心白日知 성심을 다하여 임금의 모심은 밝은 해가 다 아는데
自嗟行事始終違⁴⁸⁾ 행한 일이 시종 어긋남을 한하노라

忠信 · 誠心으로 정직하게 처신하여 종사를 안정시키고 도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직한 人事를 받아 들이지 않고, 圈外로 추방하여 소외시킨다. 그러나 결코 無道한 세상이라고 비웃거나, 혼자만 고고하다고 뽐내지 않는다. 이것은 현실을 거부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인식과 연관을 맺는다. 현실적인 처지야 어찌되었건 척박한 땅에 孤根을 박고 있으면서도 향기를 품은 해바라기처럼 신념만을 扶持하고 있으면 때는 다시 오는 것이다.
49)

47) <陳筍有感> 2首 本集 권2, 150면.

48) <庭參後吟> 續集 권1, 290면.

49) 이러한 의식은 다른 여러 詩篇에서 찾을 수 있다. '遇事周章非我志 / 責難狂直是吾心 : 일을 당하여 떠돌아 다님은 나의 뜻 아니오 / 임금님께간함에 엄정한 것이 나의 마음이네' (<述懷 次洪裕孫韻> 本集 권1, 161면). '寧嫌浴纒直 / 只欲補楓宸 : 차라리 뜻이 굳고 곧아 미움을 받더라도 / 조정에 보탬이 되고 자 한 것이다' (<보筍日 夜坐偶吟> 本集 권

| | |
|------------------------|-------------------------------|
| 我議前車人議我 | 내가 앞 수레를 얘기하니 사람들은 나를 얘기할 것이고 |
| 今論往事後論今 | 지금 지난 일을 의논하니 뒤에는 지금을 의논할 것이네 |
| 紛紛論議何時定 | 분분한 논의 어느 때에 잠잠하리오 |
| 要在平生不愧心 ⁵⁰⁾ | 바라는 것은 평생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라네 |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 준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議論 가운데서도 항상 자신의 뜻을 표명하며 그 실천에 힘쓴다면 떳떳한 삶이 된다. 正道를 가슴에 품고 簡默함을 중시여기기 보다는 法으로써 邪惡함을 밝히고, 행동으로써 威形을 끊어야 하는 것이다. 仁이 사랑의 포용적 성격이라면 義는 惡에 대한 배척의 분별적 성격을 갖는다. 義는 不義를 거부하고 부끄러워하는 부정적 성격을 지닌다. 時論이 道에 어긋난다면 義를 내세워 諫諍하고 그 속에서 忠義 節義가 확인되는 것이다. 의리를 상실한 忠은 이미 忠이 아니라 아첨이다. 동계는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一身의 安寧을 도모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항상 義를 지키는 것이라 규정한다.

광해군이 동생을 증살한 영창대군의 옥사는 동계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옥사가 일어나자 곧바로 <갑인봉사>를 올린다. 아래 시는 이 상소를 올린 후 쓴 것이다.

| | |
|-------|------------------------|
| 劓肝裁短奏 | 간을 쪼개 짧은 상소 마라시 |
| 排闥叫彤雲 | 궁궐 문 밀쳐 붉은 구름 부른다 |
| 昭雪非哀死 | 명명 씻으려는 건 죽음을 슬퍼함이 아니라 |
| 光明欲贊君 | 광명천지 만들어 임금의 돕고자 함이네 |
| 丹心猶自皎 | 붉은 마음은 오히려 교결해지니 |
| 群義任他紛 | 많은 의론들은 분분한데로 두리라 |
| 譬說如毫補 | 어리석은 말 털 끝만큼이라도 있다면 |

1, 158면).

50) <護成> 本集 권1, 147면.

做身死亦欣⁵¹⁾ 미친한 몸 죽어도 좋으리.

동계가 상소를 올리는 마음은 爲君忠國하는 衷心에서 나온 것이지, 개인의 영달이나 사리사욕 등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영창대군이 증살되고, 인목대비 폐위론이 일기 시작할 때 <甲寅封事>를 올리고 난 후 읊은 시이다. 상소를 올리는 마음은 오직 忠이며, 자신의 道에 비추어 상소를 올린 행위와 그 내용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는 강한 어조이다. 상소를 올리는 마음은 오직 君主를 光明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충간을 올리고 나니 忠심이 더욱 깨끗해진다. 상소를 올린 후에 일신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卍生: 삶의 준거에 세계를 재단하여 '道義의 實現'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상소를 올리는 마음의 곡진함은 '간을 마르고 그 위에 상소를 쓴다'는 표현에 담겨 있으며, 是非에 대한 단호한 결단은 '어리석은 말이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다.

아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국법으로 매우 엄합니다. 보통 사람도 무고하게 죽이면 오히려 용서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하의 동기를 죽인 것이 아닙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정향을 참하지 않으면 전하께서 선왕의 묘정에 들어갈 면목이 없게 될 것입니다. …… 마땅히 유사에 명하여 영창의 칭호를 追復하고 대군의 예로써 장사하며 애통해하는 교지를 내려서 사방에 전하의 지성과 우애를 분명히 알게 하면 위로는 하늘에 계신 선왕의 혼령을 위로할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미혹된 소문을 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⁵²⁾

상소문에서 동계는 영창대군 증살에 대한 두가지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임금의 同氣를 죽인 정향을 참해야 한다. 둘째 영창의 칭호를 추복하고 대군의

51) <歸疏後吟> 續集 권2, 294면.

52) <甲寅封事> 以弼善達付司直時 二月三十日. 本集 권3, 203-205면. 噫 殺人者死 國法甚嚴 殺凡人無辜 且罔赦 況殺吾君同氣之親乎 臣愚以爲不斬鄭沆 恐展下無面目 入於先王廟庭也 …… 宜命有司 追復永昌之號 葬以大君之禮 又下哀痛之教 使四方臣庶 曉然知展下至誠友愛之本心 則上可以慰先王在天之靈 下可解萬民視聽之惑.

예로 장사 지내고, 애통해하는 교지를 내려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영창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의미보다는 영창의 죽음을 처리해야하는 광해군을 위한 것이다. 살인자를 참해야 선왕의 묘정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창을 追復하여야 선왕의 혼령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의혹을 풀 수 있다는 것이 동계의 주장이다. 영창의 누명을 씻으려는 것은 영창의 죽음을 슬퍼하기 보다는 차라리 광해군이 人倫에 맞게 처신하여 道를 행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영창은 어려서 역모를 꾸밀 마음도 없었으며, 실제로 역모를 꾸민 증거도 없었다. 그리고 閹門에서는 義보다는 恩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역모가 드러났어도 恩惠로 덮어야 하는 것이다. 君臣이 義理로 맺어진 관계라면 兄弟는 혈연관계이다. 아우가 신하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同氣間의 우애로 그 잘못을 감싸줘야 마땅하다는 것이 동계의 善惡說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영창의 누명을 씻는다'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유가적 道의 유일한 실현공간을 정치현장으로, 그 실천 주체를 君臣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일생동안 정치권 내에서 道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道의 유일한 실현공간에서의 無道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신하로서 道의 실현의지는 忠諫으로 표출된다. 신하로서 임금에 대한 의리는 임금의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道·人倫에 관계되는 일은 一毫라도 어긋나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밝혀야 한다. 天地 萬物 이전에 天地 萬物의 理가 있다⁵³⁾는 주자의 관념론을 그 사유 기반으로 삼을 때 피할 수 없는 논리적 결론이다. 정치 현실에서의 道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반드시 정치적 목표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자기완성의 의미가 더 강하다. 동계는 道學者를 자처하지도 않았으며, 철학체계를 구체적으로 피력하지도 않았지만 程朱를 존중하여 주자학적 사유에 깊이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변적인 퇴

53) <道覆載萬物論> 木集 권2. 194-196면. 참고.

계의 학풍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천을 중시하는 남명의 학풍을 깊이 체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왜란, 호란을 겪으면서 국토가 초토화되고, 민중의 고통이 배가되고 지배층의 자기 분열로 봉건지배체제의 동요가 심화되던 시기에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강인한 현실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광해군이 영창을 동기로 보아야 한다는 동계의 주장은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 임금과 신하는 의리로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신하로서 열심히 諫하다가 말이 받아 드러지지 않거나, 정치가 의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동기는 끊어 버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비의 판단보다는 은혜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의 실천주체인 임금의 도덕적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자기완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동계는 결국 유배형에 처해 진다. 유배란 정치권에의 추방으로 정치적 소외이다. 정치현장을 유일한 도의 실현공간으로 믿는 동계에게는 보다 충격적인 정치적 좌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계의 의식은 과연 어떤 변화 혹은 굴절을 보여 줄까 이에 대한 의문은 다음 항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 | |
|----------------------|----------------------|
| 主有蒙塵辱 | 주상은 몽진하는 욕을 당하는데 |
| 臣無效死人 | 신하에겐 목숨을 다하는 이가 없구나 |
| 要盟愧牛耳 | 맹세를 요구하니 주상이 수치를 당하고 |
| 腥臭襲楓宸 | 피비린내 궁전에 스며들네. |
| 海國多愁霧 | 바닷가 마을에 수심겨운 노을이 지고 |
| 京都溢惡氛 | 서울에는 나쁜 기운이 넘치는구나 |
| 滿朝多肉食 | 온 조정에 육식하는 자 많으니 |
| 誰辦濟時屯 ⁵⁴⁾ | 누가 세상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리오. |

憂時戀君歌로 明과의 義理 때문에 만주족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없다는 입

54) <聞胡差以莅盟事來> 木集 권1, 158면.

장이다. 국가간의 信義를 지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원리로서 春秋大義를 존중
한 것이다. 오랑캐가 쳐들어 와서 임금은 몽진하는 욕을 당하는데 신하들은 목
숨을 다하는 이가 없다. 오히려 私慾을 채우는데 급급하니 누가 이런 혼탁한
세상을 구제하겠는가.

| | |
|------------------------|----------------------------|
| 吾東奉朔幾千齡 | 우리나라가 천자를 받든 지가 몇 천년인데 |
| 削去皇元不忍聆 | 황원을 없애라는 말을 차마 들을 수가 없구나 |
| 廟堂政應援義斥 | 조정 의 신하는 마땅히 의리를 들어 쳐야 되는데 |
| 微臣猶恐贊和成 | 미력한 신하는 오히려 講和가 될까 두렵구나 |
| 王師退步渾忘戰 | 왕의 군대는 다투어 도망가 싸움할 뜻을 잃고 |
| 猛將臨危最欲生 | 용맹한 장수도 위태로움에 살아나고자 하는구나 |
| 畢竟中興誰可辦 | 결국 중흥에는 누가 힘쓸 것인가 |
| 箕封不作左衽氓 ⁵⁵⁾ | 기자가 봉한 땅에서 오랑캐 백성이 되지 않으리라 |

동계는 승명정책을 옹호하는 척화주전론자임을 알 수 있다. 오랑캐 병사가
天啓 연호를 없애라는 요구를 듣고, 그는 천자를 받든 지가 몇 천년인데 皇元
을 없애라는 말은 가당치않은 것이라 하고 있다. 천계를 없애는 것은 義理에
맞지 않는 것이다. 조정의 백관들이 明에 대한 義理之心이 있다면 講和가 될 수
없다는 論理이다. 정치는 마땅히 義로써 不義를 물리쳐야 하는데 백관들과 장
수들의 義理之心이 의심스럽다. 箕子가 봉한 땅을 오랑캐가 차지하려 하는데 王
帥는 도망가기에 바쁘고, 猛將들도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에 급급하다. 나라가
기울어가는데 그 누가 中興에 힘쓸 것인가. 義理之心을 지키지 않는 백관, 왕사,
장수들에 대해 비분강개하며 정치는 의리로써 쳐야 하기 때문에 不義의 講和는
不可하다는 입장이다.

성리학적 義理論에 따르면 국가의 존망에 대한 집착보다 大義를 지키는 것
이 근원적 가치를 갖는다. 大義를 저버리고 존속하는 것은 진정한 생존이 아니

55) <聞胡差劉海等 要削天啓年號> 本集 권1, 166면.

고 또한 생존의 보장도 못되는 것이라 본다. 不義 속에 생존하는 것은 결국 역사 속에 조만간 멸망할 뿐이고 大義를 지킨다면 한 때 죽음을 당한 것 같아도 영원한 생존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義理의 정당성이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요, 생존의 요구가 의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으로 인식된다.⁵⁶⁾

| | |
|----------------------|-------------------------|
| 德源有醉客 | 덕원에 취한 손님있어 |
| 呼我唐介氏 | 나를 당개씨라 부르는데 |
| 子方如有神 | 만일 자방(당개)의 귀신이 있다면 |
| 應知羞我比 | 나를 그에 비하는 것을 부끄러워 할터이고 |
| 我亦不願爲 | 나 또한 원치 않네 |
| 君請姑舍是 | 바라노니 그리 말게나 |
| 許身在稷契 | 나는 직설이 되어 |
| 都兪輔姚姒 | 요·순임금 보좌하여 |
| 庶使風俗淳 | 백성들 풍속이 순박하지만 |
| 復見熙皞理 | 다시 밝게 빛나는 이치를 거듭 보는 것이니 |
| 一言便見斥 | 한마디 말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것은 |
| 非我平生志 | 평생의 나의 뜻 아니었네 |
| 感嘆愧古人 | 옛 사람에게 부끄러워 탄식하니 |
| 獨立風霜裡 ⁵⁷⁾ | 서러바람 속에 홀로 서 있다 |

동계가 꿈꾸는 이상세계와 그 실현을 위해 어떠한 실천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떤지를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은 경운궁 옮기는 일에 상소를 올려 폄하되자 벼슬을 사양하고, 北行 도중에 지었다. 덕원을 지나는데, 府使 閔如任이 술에 취하여 동계를 맞이하면서 ‘唐介’라고 하자 이에 대한 감회를 읊은 것이다.⁵⁸⁾

동계의 이상은 先王之道로 堯·舜 등의 선왕의 길을 자기의 시대와 사회에 펴보려고 평생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선왕지도는 동계가 품었던 이상세계의 실체이고 모습이었다. 어지러운 현실을 匡正하고 과거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상

56) 琴章泰, 「義理精神과 선비 精神」,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宇石, 1986). 245면.

57) <因德源倅載言 感而有題> 本集 권1, 168면.

58) 年譜 404-405면. 唐介-北宋대 정치가로 강릉사람이다. 字는 子方.

향을 다시 건설하기 위한 주안점은 德治에 있다고 믿었다. 군왕이 먼저 자기자신을 수양하여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그 다음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의 전형은 고기, 직설이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직책을 다할 때 정치현장에 道는 실현된다. 정치가 바르게 되면 백성들의 풍속도 자연히 순박해진다. 이와 같은 것이 동계가 꿈꾸는 이상세계이다. 그는 이를 위하여 노력했지만 오히려 배척을 당하여 참참함에 싸여 있다.

2. 挫折과 鄉愁의 變奏

인간은 일정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와 교섭한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에 의해 자신의 理念을 자각,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使命은 자신의 인생지침이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理念은 인간의 삶을 진실로 발전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動因이다. 동계는 객관적 진리의 지적 추구보다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주체적 자각과 행동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사변적인 철학보다는 행동, 실천의 철학을 견지하여 학문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투철한 성리학적 의리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개인의 이념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수용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동계가 정계에 나갔던 혼란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광해군, 인조 연간은 지배층의 분열과 이로 인한 외침으로 정국이 혼란하여 옳바른 公論이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동계는 주로 言官職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념인 성리학적 의리를

실현하려다 번번히 유배, 탄핵, 폄하를 당한다. 그는 광해군 3년(1611) 사간원 正言으로 경운궁 옮기는 일을 정지하도록 청하다 경성판관으로 좌천됐다. 동왕 5년에는 영창대군 옥사를 보고 ‘世道가 위험하고 時議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여 귀향하려나 탄핵을 당하고, 그 이듬해에는 <甲寅封事>를 올려 유배형을 선고 받는다. 인조 원년(1623)에는 인성군에 대한 全恩說을 주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사직하고 귀향한다. 이頃の 과제는 동계가 이러한 정치적 패배를 어떻게 수용했으며, 그 수용과정에서 어떠한 정신적 고뇌와 갈등을 겪었으며, 그 이후에 삶의 의식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동계의 의식의 변모를 살펴는데 10년간의 유배는 중요한 의미를 띤다. 어떠한 경우이든 정치인에게 유배는 한계상황이다. 유배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유로이 극복할 수 없으며,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공간으로부터 밀려나는 것이다. 正道를 주장하다가 추방당하고 이로 인하여 느끼는 소외감은 正義 실현에 대한 신념이 강한 인간형일수록 더 큰 시련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자아와 세계의 갈등 양상은 대결로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자아가 일방적인 패배를 당한다. 그래서 그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온갖 갈등과 고뇌를 경험한다. 絶島라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공간에서 고독감, 궁핍의식, 자기 연민, 무력감, 이별의 정한, 고향 상실감 등 우울하고 어두운 제 감정의 혼조를 보인다.

..... (생략)

| | |
|------------------------|-----------------------------|
| 獨携忠信窮溟去 | 홀로 충성과 신의를 지키려다 궁한 바다로 쫓겨나고 |
| 猶望功名壯歲收 | 공명을 바라다가 장년의 나이에 거두어졌네 |
| 歸語妻孥莫相念 | 돌아가 말하게나 처자는 나를 생각하지 말라고 |
| 瀛洲雖遠亦王區 ⁵⁹⁾ | 영주가 비록 멀지만 역시 임금의 땅이라네 |

59) <贈尹而受> 名應錫 夫人弟也. 本集 권1, 160면.

<甲寅封事>를 올린지 5개월 뒤에 絶島 圍籬安置刑을 받고 제주로 향하던 도중 於蘭浦까지 따라온 처남 尹應錫에게 주는 이별시이다.⁶⁰⁾ 自己正當化와 自己慰安이 동시에 표출되어 유배에 대한 동계의 의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홀로 충성과 신의를 지키려다 궁한 바다로 쫓겨나고 / 공명을 바라다가 장년의 나이에 거두어졌네'라는 구절은 자기정당성에 대한 확신⁶¹⁾이며 세계의 無道함에 대한 한탄이다. 자신은 忠信을 다했는데 오히려 궁한 바다로 추방당했다는 동계의 自己認識은 현재 자신의 처지가 世界의 無道함에 의한 시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동계는 영창대군 증살의 事後對策과 인목대비 폐모론자의 처벌을 주장하다 유배형을 받았으며,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겪게 되는 流配는 이념의 문제이자 양심의 문제이다. 동계에게 '성리학적 의리'는 최상의 가치이며 행동의 규범이다. 이를 지키려 直言을 올렸다 禍를 당했기 때문에 자기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충신, 간신을 가리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다. 賢愚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한탄은 자신은 공명을 바라며 時勢에 아부하는 世人들과는 구별지으면서, 자신만이 時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마지막 구절의 '亦'字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궁한 바다', '먼 영주 땅'으로 추방되지만 그곳 역시 王化가 미치는 '王土'라는 자기위안이다. 이러한 자기인식, 자기정당화, 자기위안은 유배라는 고난과 절망을 해소, 극복할 수 있는 動因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변모는 無道한 세계를 행동에 의해 개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현실을 내면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하는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60) 年譜 409면 참고.

61)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은 여러 詩篇에서 찾을 수 있다. '一生真直頗相似 / 半世婆娑自在吟 : 일생동안 치우치고 꺾어진 것을 바르고 곧게 하려 했는데 / 반세를 떠도며 읊는 신세되었구나' (<聽松堂寄題> 本集 권1, 161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王土'라는 자기위안 역시 유배지 생활 속에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 詩는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유배상황에서 느끼는 고독, 우수, 그리움, 비애 등을 직접 경험하기 전이다. 실제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동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게 전개된다. 이 詩에 드러나는 자기확신과 자기위안은 작가의 관념적인 진술 혹은 희망사항일 따름이다. 그 후 유배지에서 쓰여진 詩를 살펴보면, 유배지 도착 전의 감정과는 다른 면모 즉 더욱 고독하고 그리움에 쌓인 동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배는 삶의 일반적 조건으로부터의 차단이다. 따라서 유배로 인해 일차적으로는 단절과 고립에서 오는 충격을 크게 느낀다. 이런 충격은 고독과 절망 또는 불안과 빈궁을 동시에 겪게 한다. 그 중에서도 絶詩 위리안치형인 경우 그 충격의 정도는 더욱 심했을 것이다. 環海孤島라는 상황은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를 의미하며 지금껏 자신이 누려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⁶²⁾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 |
|------------------------|--------------------------|
| 不恨吾生命數奇 | 내 생애 불우함을 한하지 않으니 |
| 只愁今世斷心知 | 다만 금세에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근심하노라 |
| 危城已賦長沙鵠 | 위태로운 성에서 賈誼의 鵠鳥賦를 읊고 |
| 鵠鳥孤吟楚澤辭 | 절해고도에서 屈原의 楚辭를 외롭게 읊조린다 |
| 生死念關均有淚 | 생사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고 |
| 西南路絕費相思 | 서남지방에 있으니 소식조차 끊어지는구나 |
| 瓊瑤詠罷荒城暮 | 황량한 성 저물 무렵 아름다운 시를 읊으니 |
| 海月分明兩地垂 ⁶³⁾ | 바다에 뜬 달은 분명 고향에도 비추리라 |

'鵠鳥 危城'으로 쫓겨난 신하로서 賈誼와 屈原을 聯想한다. 간신의 참소로 억울하게 추방당했다는 자기인식이 역사적으로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굴원과

62) 김대행, 「絶島 謫居와 文學의 길 -<萬言詞>를 중심으로」, 「梁淳瑠博士華甲紀念論叢 語文學論叢」(學文社, 1993).

63) <次安知堂韻> 本集 권1, 165면.

가의, 그리고 그들이 지은 <楚辭>, <鵙鳥賦>를 떠올린 것이다. 이 작품에서의 聯想은 '동일한 처지'라는 고리를 통해 역사적 인물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권에서 추방되어 寒微해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보다는 충성어린 진심을 알아 주지 않는 현실을 근심하고 있다. 간신의 모함으로 정치적 시련을 겪었던 굴원과 가의에 대한 경도는 자신의 경우와 같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마천의 史記에 의하면 “굴원은 바른 행동과 곧은 행동을 하고 충성과 지혜를 다하여 그 임금을 섬겼으나 誣告하는 사람들이 이간하여 곤궁하게 되었다. 信義를 지키고도 의심을 받고 忠誠을 다하고도 비방을 받았으니 원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소」를 지은 것은 怨心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여 굴원의 放逐된 이유와 「이소」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賈誼는 율령의 개정을 주장하다 많은 신하로부터 비방을 입어, 長沙王의 太傅로 좌천된다. 그는 장사로 부임해 가는 도중 상수를 건너면서 <弔屈原賦>를 지어 굴원을 조상한다. 장사왕의 태부가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는 부영이가 날아든 것을 보고 장사는 低濕地라서 장수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상심하여 <장사복>을 지어 자신을 위로한다. 이 작품은 방에 날아든 부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부영이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만물이 변화 流轉하는 것처럼 화복과 길흉, 기쁨과 슬픔의 근원도 그 전환을 알 수 없으며, 天命 天道를 헤아릴 수 없으니, 삶과 죽음은 같은 것으로 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초탈한 경지를 보여준다.⁶⁴⁾ 이밖에도 많은 작품에서 굴원을 애도하고 있는데⁶⁵⁾ 이것은 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다.

64) 사마천, 『사기』 권84 屈原 賈生列傳 제24.

65) 몇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次林樂翁韻> (本集 권1, 157면). <雨中> (本集 권1, 160면). <初度日吟>, <至月晦日>, <客舍橋林>, <謝李牧使送秋露全韻> 등.

| | |
|----------------------|---------------------|
| 蕭蕭風雪夜 | 눈보라 치는 쓸쓸한 밤에 |
| 悄悄倦休時 | 근심에 겨워 곤한 몸을 쉬네 |
| 春近多繁夢 | 봄이 가까우니 꿈이 많아지고 |
| 年窮覺益衰 | 해가 저물어가니 더욱 쇠약해지는구나 |
| 聞鶴愁不寐 | 닭소리에 수심겨워 잠 못이루다가 |
| 待日起常遲 | 아침에는 오히려 더디 일어나네 |
| 倚枕朝看鏡 | 아침에 베개에 기대어 거울을 보니 |
| 霜毛我是誰 ⁶⁶⁾ | 서리같은 털이 나는 누구인가? |

여기에 오면 동계의 자기확신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곤하고 쇠약해지고, 백발이 성성한 자신을 낯설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통해 그가 느끼는 고독과 비애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눈보라 치는 쓸쓸하고, 차갑고, 적막한 밤’이라는 배경은 동계의 心事를 대변하고 있다. 이 시에서 이러한 이미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을 의미한다. 어둠의 상황에서 의지하고 고통을 나눌 이웃마저 없으니 고독감을 더욱 짙어진다. 이것은 또한 수양을 요구하기도 하고, 좌절과 고통을 배태시키는 자기압박의 요소이기도 하다. 유배, 탄핵은 동계 삶의 기준을 흔들여 놓고,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깊은 고통과 좌절과 갈등 속에 빠져든다. 그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倦, 衰, 霜毛’ 등으로 묘사하여 자신의 고독과 비애로 자신의 삶이 시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거울을 대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회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다. 거울 속에 비친 ‘백발노인’은 세월의 흐름에 아무런 뜻도 펼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때문이다.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덧없이 늙어 가는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면서 ‘나는 누구인가’하는 의문형으로 작품을 마치고 있다.

66) <朝起> 本集 권1, 153면.

‘我’라는 詩語는 동계의 다른 시편에서 찾아 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자신을 3인칭화하여 ‘客, 囚, 人, 臣’ 등으로 칭하고 있지만 이 詩에서만 ‘我’라고 지칭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의기양양한 무리에서부터 따돌림을 당한채 주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버림받아 외롭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다. 단절 격리된 자신을 의식한 곳에서 1인칭 대명사를 쓴 것이다.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고립감과 비애감이 더 격앙되었음을 나타낸다. ‘我是誰’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늙고 피곤하고 수심에 겨운 자신’을 낯설게 느끼고 있다. 이런 낯설음은 평소 이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던 자기의 모습이 아니며 자신의 言行의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
|----------------------|---------------------|
| 一作籬中囚 | 한번 위리에 갇힌 몸 |
| 五圓海上月 | 둥근 바다에 달이 비치네 |
| 南鄉消息稀 | 남쪽 지방에는 소식조차 뜸하니 |
| 北闕夢魂越 | 혼만 꿈속에서 북궐을 헤매네 |
| 時序何飄忙 | 어이하야 시절이 이렇게 빠르고 |
| 容顏易衰歇 | 얼굴은 쇠약해졌는가 |
| 邊城曉角生 | 변성에서 새벽 나팔 소리 들으니 |
| 愁緒入霜髮 ⁶⁷⁾ | 서리같은 머리털에 온갖 수심 서리네 |

邊城 圍籬에 갇인 신하가 孤絶感과 疎外感,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고향 소식은 뜸하고 마음은 항상 북궐로 향하는데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처지이다. 자신의 이상을 펴보지도 못했는데 세월은 무심히 흐르고 있다. 이러한 孤絶無援感의 원인은 絶島 圍籬安置이다. 유배객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의 격리 고립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은 임금만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임금은 동계가 준엄한 어조로 잘못을 지적하던 옛날의 의미가 아니다. 바다로 단절된 섬에서 벗어나게 해

67) <臘月·II> 本集 권1, 153면.

줄 수 있는 절대적 존재인 것이다. 그가 귀양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이 때의 동계의 처지는 그의 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圍籬安置된 집은 山竹, 싸리나무, 眞紫로 두텁고 뽕뽕히 하여 어긋난 곳이 없게 하니, 그 높이는 용마루 위로 솟아 열자가 넘을 것이다. 긴 나무로 대를 만들어 엮은 것이 사충이니 높아서 무너질까 두려워 안과 밖으로 기둥을 세워 그것을 지탱하였다. 북쪽, 동쪽, 남쪽 삼면은 처마에 접하여 하늘을 보지 못하여 서쪽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 우물 속에 앉아 보는 것 같다.⁶⁸⁾

이 글은 위리안치된 곳의 경개다. 이처럼 좁고 단절된 공간에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尺天에 불과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은 尺地에 불과했다. 그는 ‘귀가 울려 들리지 않고,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원망스러우나 몸 안에 의탁할 수 없다. 본래 도깨비를 막으려 했으나 도리어 도깨비가 침범하고 속이고 협박하는 바가 된지가 여러 날이다⁶⁹⁾’라고 위리 안에서의 혼몽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 絶島 邊城 圍籬이라는 이중 삼중의 울타리가 동계를 구속하고 있는 셈이다. 위의 시는 바로 이러한 심사를 노래한 것이다.

| | |
|------------------------|---------------------------|
| 東籬梅竹解怡顏 | 동쪽 울타리 매화 대에 마음이 편안해지니 |
| 負手徘徊太似閑 | 손을 끼고 한가롭게 배회하네 |
| 落照漏雲紅射堞 | 구름사이로 저무는 햇살 성담을 붉게 비추고 |
| 暮煙含雨翠籠山 | 저물녘 연기는 비를 머금고 파랗게 산을 들렀네 |
| 時聞郭外回潮急 | 때때로 성 밖으로 들리는 조류가 빠르고 |
| 謾數林中倦鳥還 | 울창한 숲 속으로 새들 한가로이 돌아온다 |
| 惆悵無人問枯槁 | 슬프도다 영락함을 물어주는 사람조차 없으니 |
| 小扉雖設任常關 ⁷⁰⁾ | 작은 사립은 만들었지만 항상 닫혀있네 |

68) <大靜縣東門內圍籬記> 本集 권2, 174면. 圍籬之制 雜以山竹柎木眞柴 厚密無罅孔 其高出屋脊之上 計可丈餘 以長木作帶 結之者四層 恐其高而易覆 內外立柱撐之 北東南三面 皆接籬 全不見天 由西方見之者若坐井者然.

69) <鄭贊甫滿月堂記> 本集 권2, 175면. 自余爲僇人 密棘以梲之 高廂以閉之 所見不過尺天也 所步不過尺地也 耳聆聆無所聞也 目矚矚無所見也 心愴愴而不宅於軀殼之內也 本爲禦魘魅來也 反爲魘魅所侵欺迫脅者且有日.

70) <薄暮> 本集 권1, 163면.

변성에 간혀 있는 孤絶感을 저물녘의 쓸쓸한 景觀을 통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1 - 6행까지 저물녘의 자연과 그것을 玩賞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눈 앞에 있는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 한가한 모습이다. 동계는 저물녘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가롭게 뜰을 거닐면서 주위의 자연을 玩賞하다, 문득 자신에게 시선을 던진다. 이러한 자아의 시선을 조심스럽게 좇아 가다 보면 자아의 상황인식과 그에 따른 감정적 동요를 만날 수 있다. 그는 실제 유배지에 四友(梅, 竹, 松, 菊)을 심어 그것들을 완상하면서 심신을 수양하기도 하였다.⁷¹⁾

매화와 대나무는 俗態하고 無道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선비를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동계는 이러한 상징물로서의 매화와 대나무를 玩賞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또한 유배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행여 흩어질 수도 있는 자신의 신념을 굳히기도 하는 것이다. 저물녘 햇살은 성담을 붉게 비추고 안개조차 산을 둘렀다. 성 밖에서는 간간히 파도 소리가 들리고 울창한 숲 속으로 새들이 모금자리를 찾고 있다. 이때에 비로소 성난 파도 소리가 들려 오고, 먼길을 떠났던 새들이 보금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울타리 안의 매화와 대나무에서 성담, 산, 허공을 나는 새로 시선이 차츰 멀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계의 마음 역시 차츰 동요하고 있다. 1, 2행에서는 解怡, 閑 등을 통해 편안하고 고요함을 5, 6행에 와서는 急, 倦 등을 통해 피곤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 문득 <나>로 돌아와 <나>의 상황을 돌아 보게 된 것이다. 7행에서 '추창'이란 감정적 어휘가 전면에 나옴은 동계의 격렬한 감정을 반영한다. 1-6행까지의 자연은 평화롭고 고요하였지만 그것을 완상하는 인간은 오히려 고절감을 느끼고 있다. 1-6행까지는 7-8행을 말하기 위해 전제되었던 것으로 동계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7행의 '惆悵'한 心事다. 추창한 심사의 원인은 '外部와

71) <答林樂翁問> 壬戌, 木集 권2, 199-200면. 참고.

의 斷絶'이다. '사립은 항상 닫혀 있어 영락함을 물어 주는 사람'이 없기에 느끼지는 孤絶感이라 할 수 있다.

몸이 거둬 어그러져 세상에서 버림을 받자 평일에 마음을 다하던 사람들은 칼자루를 쓰다듬고, 서로 困窮함을 도왔던 벗들도 돌을 던지는데, 하물며 오랑캐 땅 적막한 바닷가에서야. 새소리는 구별하기 어렵고 오랑캐의 얼굴은 이상하게 생겼다. 풍속은 詩書禮樂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수렵과 어로만을 일삼는다. 내 유관을 보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책을 읽는 것을 보면 다른 류의 사람이라 하여 怪物, 異類 취급을 하니 어찌 잠시라도 괴물 이류에 마음을 써 내 집을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겠는가. 사이에 村老들은 시간이 가면서 질책하고 시기하며 혹은 참소하며 지방 관원은 출입을 금하여 서로 만날 수 없게 한다고 한다. 그러니 높은 올타리는 짐승의 우리와 같이 쓸쓸히 살아가는 황량한 곳이다. 낮에는 해를 보지 못하고 밤이면 달과 별을 볼 수 없다. 비록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있겠는가.⁷²⁾

글의 첫머리에서 자신에 대해 知己들이 보여 주었던 태도의 변화를 쓰고 있다. 관직생활이 순조로울 때 知己, 同僚들은 동계가 조정에서 쫓겨나 영락한 신세가 되자 모두 그를 외면한다. '輸心者'는 평소 자신에게 정성을 다했던 동료 혹은 벗들이고, '同袍者'는 같은 두루마리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困窮함을 함께 했던 절친한 벗을 이른다. 이런 동료, 벗조차 불우한 상황에 놓인 동계를 죽이려 하거나 비난을 하고 있다. 하물며 오랑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知己들의 냉랭한 태도에 실망하고, 비정한 세상의 인심에 대해 슬퍼하고 한탄하고 있다.

결국 동계의 孤絶感은 낮설은 변방이라는 데서 더욱 심화된다. 풍토와 풍속이 달라 괴물, 이류 취급을 당하고 유배객을 방문하면 질책, 참소, 시기를 받기 때문에 방문객을 기다리지만 찾아 오는 이가 없어서 더욱 고독한 것이다.

72) <擬剝啄行序> 并詞 本集 권2, 180면. 身負重戾 見棄一世 平日輸心者按劍 同袍者下石 況於蠻獠之境 寂寞之濱哉 鳥語難辨 夷面可愕 俗不喜詩書禮樂之習 而惟射獵潛漁是事 視我冠儒冠 則指爲怪物 見我對書籍 則認爲異類 彼於怪物異類 有何一分顧念而來我門剝啄哉 間有村叟野老之日月 至焉者 則衆罵而群猜之 至或讒之 邑宰申令禁斷 使不得相接 故高籬牢戶 索居枯處 晝不見天日 夜不見月與星 當是時也 雖欲聞剝啄 其可得乎.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여 고독감, 소외감을 덜고 싶었지만, 현지인과 지방관에 비친 동계는 죄인일 따름이다. 이렇게 철저란 고립감과 소외감을 체험했기 때문에 ‘평생 홀로 가는 땅 / 오늘은 유배객의 회포를 달는다’⁷³⁾라고 읊었는지 모른다.

동계는 다른 謫客들처럼 유배지를 돌아 다니면서 현지인들과 교류를 가지거나 유배지의 승경을 즐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조차 “죄에는 輕重이 있으니 재난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다. 슬프지만 이는 자초한 일이니 하늘이 정한 범위를 감히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 지방 사람들이 나에게 곡식을 주려고 하지않으나 한가로이 사귀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궁박한 데에 왔으며 더우기 감독관까지 있으니”⁷⁴⁾라고 반문하면서 억울하게 유배형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형벌을 구태여 지키려는 고집스러운 선비의 면모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그의 고절감을 더욱 가중시켰던 것이 분명하다.

| | |
|------------------------|-------------------------|
| 窮囚元不出圍籬 | 죄인은 본래 바깥 출입을 못하니 |
| 春去春來渾莫知 | 봄이 오고 가는 것도 몰랐네 |
| 偶見村人間消息 | 우연히 마을사람 만나 소식을 물으니 |
| 野花落盡緣盈枝 | 들꽃은 떨어지고 녹음이 우거졌다네 |
| 絕域孤囚又送春 | 절도 외로운 죄인 또 새봄을 보내니 |
| 跳丸日月不饒人 | 흐르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구나 |
| 母恩君德何時報 | 모은군덕을 어느 때에 갚으리오 |
| 鏡裡羞看鬢似銀 ⁷⁵⁾ | 거울 속에 은빛머리만 부끄럽구나 |

봄이 오는지도 몰랐는데 村人이 벌써 녹음이 짙은 여름이라고 알려 준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세월에 자신의 처지를 돌아 보고 있다. 1

73) <風亂> 續集 권1, 295면. ‘平生獨往地 / 今日閉籠懷’.

74) <擬剝啄行序> 并詞 本集 권2, 180면. 罪有重輕 何矣嘗災 哀此自作 天封地闕 何敢寸越 此邦之人 不我肯殺 踰閑交接 非我所欲 窮之所往 況有官督.

75) <三月晦 偶吟 二首> 本集 권1, 146면.

수에서는 우연히 마을 사람을 만나 봄이 지나고 녹음이 우거졌음을 알게 되고, 2수에서는 시간 앞에 무력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초조감이 나타난다. 동계는 갇아야 할 '모은군덕'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유배객인 동계에게 있어 母恩君德을 갚는 것은 당연한 사명감이다. 그러나 유배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효도의 시작조차 실천할 수 없다. 부모와 천리나 떨어져 있으니 봉양을 할 수도 없으며, 조정에서 추방된 신세이니 군덕을 갚을 수도 없다. 동계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이에서 연유한다. 그래서 그는 '천리에서 아버이 생각하는 눈물을 거둔다면 / 태고의 선인과 함께 돌아가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⁷⁶⁾라고 읊는다. 동계는 많은 詩篇에서 불효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가⁷⁷⁾하면 명절, 선군의 제사날, 가족들의 생일날에 더욱 절실히 향수에 젖어들고⁷⁸⁾ 진미를 보고 老母를 봉양하지 못하는 처지를 탄식⁷⁹⁾하거나 노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약재와 해물을 고향으로 보내기도 한다.⁸⁰⁾

美人天北極 미인은 하늘 북쪽 끝에 있고
孤影地南涯⁸¹⁾ 외로운 그림자 땅 남쪽 끝에 있네
天地南溟遠 천지에 남쪽 바다에서 멀고
星辰北極遙⁸²⁾ 별들도 북극성에서 떨어져 있구나

76) <聞鷄起坐> 本集 권1, 161면. '若除千里事親淚 / 無慮還同太古先'.

77) <朝鴉> 本集 권1, 143면.

78) <秋夕獨坐感吟> 本集 권1, 156면. <秋夕夜吟> 本集 권1, 163면. <八月初三日有感而吟 -> 是日乃姜夫人晬辰也. 本集 권1, 163면. <三日慈母初度有感> 本集 권1, 142면. '해마다 오늘은 생일 잔치를 열어 / 형제 셋이 老萊子 춤을 추었지 / 오늘은 바다 건너 떨어져 있으니 / 문가의 어머니 슬픈 마음이지겠지'.

79) <對案有感> 本集 권1, 142면. <主倅送生鮑> 本集 권1, 142면. '여기 저기 소반에 진미 가득하여 / 젓가락을 드니 멀리 계신 부모님이 생각난다'

80) <爲親設星宿祭于漢擎山> 本集 권1, 156면.

81) <風亂> 續集 권1, 295면.

82) <夜吟> 本集 권1, 153면.

동계가 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의 설명과 함께 戀君의 情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 자신은 남쪽 끝 땅에 있고, 임금은 북쪽 끝 하늘에 있다는 對句를 통해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북두성은 별들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주위에는 많은 별들이 돌고 있다. 그러므로 북두성은 절대절명의 원리로서 忠, 道, 혹은 임금의 상징이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쳐다본다는 것은 폐쇄적이고 어두운 현실에서 탈피하여, 넓고 밝은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비록 위태로워진 신세지만 道의 具現이라는 그의 지상목표를 저버린 것은 아니다. 동계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德, 道를 실천하는 임금을 그리워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라볼수록 자신과 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다.

母恩君德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선비로서의 의식은 여러 편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 |
|------------------------|-----------------------|
| 奔雲渡海向神京 | 분망한 구름 바다 건너 서울로 가고 |
| 五色凝祥繞帝城 | 오색빛 상서로이 제성을 돌렀네 |
| 萬里羈臣隨不得 | 만리 밖에 외로운 신하 따라가지 못하고 |
| 數行哀淚寄將行 ⁸³⁾ | 몇줄기 슬픈 눈물만 흐르려 하네 |

처음의 이성적인 연군에서 차츰 감상적인 연군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도 분망한 구름처럼 임금이 계신 帝城으로 가고 싶어한다. 구름은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임금이 계신 구중심처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羈臣은 절해고도에 묶인 신세이다. 유배지에서 쓰여진 대부분의 작품에서 동계는 '窮, 遷, 羈, 孤, 愁, 幽'라는 수식어와 '客, 人, 囚, 鱗'이라는 피수식어를 다양하게 결합하고 있다. '窮'을 비롯한 수식어들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에서 추방되어 不遇해진 자신의 처지를 이르는 詩語들이다. <贈宋聖求>⁸⁴⁾와 <念七 留

83) <望歸雲> 本集 권1, 145면.

海倉 送別故鄉親故⁸⁵⁾에서는 孤立無援한 지경에 빠진 자신을 물고기에 비유하고 있다.

| | |
|------------------------|------------------------------|
| 春宮有事廟庭中 | 춘궁에 일이 있어 조정에 들어가니 |
| 執笏峨冠贊禮容 | 홀을 잡고 높은 관을 써서 예를 도왔네 |
| 拜樹降登森有節 | 절하고 읊하며 내리고 오름에는 살엄한 절차가 있으며 |
| 周旋進退肅兼雍 | 돌아서고 나아가고 물러섬이 엄숙하면서 화락하였네 |
| 門分出入因人諗 | 들고 나는 문이 다른 것은 사람들이 간하기 때문이고 |
| 路異東西責掃同 | 길이 동서로 다르지만 쓰는 책임은 같다 |
| 夢裡亦叨非分地 | 꿈속에서 또한 외람되이 땅을 나는 것도 아닌데 |
| 覺來悲淚滿曠曠 ⁸⁶⁾ | 깨어보니 슬픈 눈물 두눈에 가득하구나 |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복귀를 얼마나 갈망하는 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贈別韓金吾>에서 동계는 북쪽으로 돌아가는 동료에 대한 부러움과 유배지에 남겨진 자신에 대한 연민을 전혀 숨기지 않는다. 혹시 길에서 안부를 묻는 이가 있거든 인사삼아 잘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지 않고 적소 생활에 귀밑머리가 허영게 되었다고 전해달라고⁸⁷⁾ 하여 자신의 안타까운 심사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위의 시다. 이 시는 그의 간절한 염원을 낚 꿈이다. 여기서 꿈은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현실의 염원이다. 꿈은 심리적 평정에 아주 유용한 정신적 현상이다. 동계는 꿈을 통해 조정에 들어가 홀을 잡고, 관을 쓰고 禮를 드린다. 이 순간만은 어떠한 고독과 불안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념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가 처한 현실이 희망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 다시 복귀될지 모르는 처지다. 다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다시 임금의 은혜를 바랄 뿐이다. 이같은 절망적 상황

84) 木集 권1, 160면. '南北飄零笑此身 / 滄茫天地一窮鱗. 남북으로 영락하여 웃음 거리가 된 이 몸은 / 푸르고 아득한 천지에 한마리 궁한 물고기'.

85) 木集 권1, 159면. '遭遇明時謫類 / 茫茫滄海一窮鱗. 태평성대를 만났는데 자주 꾸지람을 받아 / 아득히 넓은 바다의 궁한 물고기'.

86) <記夢> 木集 권1, 161면.

87) <贈別韓金吾> 木集 권1, 142면. 簾中髮髮已如霜.

인식에서 그는 홀을 잡고 조정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며, 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이다.

| | |
|------------------------|------------------------|
| 陰雲欲駁月光流 | 검은 구름 낄히고 달빛이 비치니 |
| 銀海溶溶萬頃秋 | 가을날 은빛 바닷물 넓게 출렁이네 |
| 何處漁歌風外落 | 어디서 어부들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는가 |
| 解教遷客動鄉愁 ⁸⁸⁾ | 유배객이 고향생각 나게 하네 |

| | |
|------------------------|----------------------------|
| 竹簷疎冷月光斜 | 대마루 처마 처량한데 달은 빗겨 들어 |
| 啼逐愁人照鬢華 | 나그네 수염을 비추도다 |
| 今夜故園應共見 | 오늘밤 고향집 뜰에서도 저 달 보며 |
| 妻兒垂淚望天涯 ⁸⁹⁾ | 아내와 아이들이 눈물 지으며 하늘 끝 바라보리라 |

고독, 비애, 그리움, 가족들과의 이별이라는 유배 상황에서 보는 달은 절망과 그리움으로 기우는 동계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처량하고 쓸쓸한 연민의 情을 주는 달이다. 달의 憐憫的 이미지는 愁, 疎, 冷, 恨, 淚와 접맥된다. <月夜聞歌聲>에서 유배객은 달밤에 어부의 노래를 듣고 있다. 부모,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져 있는 쓸쓸한 가을날이다. 어스름 달빛에 아득히 일렁이는 바다는 한결 鄉愁를 자아낸다. 달밤에 잠조차 이루지 못하는데 어느 곳에선가 들려오는 어부의 노래는 鄉愁를 더해준다.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가 그리움의 성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黃昏見月>에서 동계는 저기 공간에 떠 있는 저 달을 보고 아내와 아이들을 연상해내고 있다. 이때의 달은 時空을 초월하여 동계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연결시켜주는 仲介者 이다. 하늘에 떠있는 저 달은 고향에서 보던 달이다. 그런데 지금은 愁人이 되어 고향을 떠나 가족들과 헤어져 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달을 매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즉 달은

88) <月夜 聞歌聲> 木集 권1, 142면.

89) <黃昏見月> 木集 권1, 143면.

천상과 지상의 연결을 통해 자아와 타인을, 주체와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仲介者的 存在로 나타난다. 이러한 달의 이미지는 두보의 달과 유사하다. “부주의 땅 오늘밤 저기 저 달은 / 규중에서 아내는 다만 홀로 보고 있겠지”⁹⁰⁾라고 읊은 <月夜>의 달 역시 나그네의 설움으로 향수에 젖는 달이다. 자신의 내적 갈등을 달에 투영시키고 있으며 고향과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달을 媒介로 좁히고 있다.⁹¹⁾

동계의 달은 그리움의 정서를 觸發하는 자연물이고 달과의 交感을 통해 달에게 외로움, 鄉愁를 호소하다. 감정이입된 달은 그리운 가족들에게도 비취 동계의 그리움을 전하고 그들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계의 달은 幻想의 달이라기보다는 인간세계에서 바라보는 호소의 달이다. 이밖에도 많은 작품에 쓸쓸한 憐憫의 달이 등장한다.⁹²⁾

인간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둡고 고립되었다고 생각되면 안온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갈망하게 된다. 고향은 부모 형제가 있고, 유년의 아름다운 추억이 서린 곳으로, 고통과 갈등을 감싸주는 母胎와 같다. 이러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현실적 고뇌를 잊어 보려는 행위로서 순수한 시절의 추억에 잠기려는 退行意識이고 둘째는 적극적인 의지로 과거의 모습을 현재의 시간 속에 재현하고 싶은 또는 그것을 닮아 가려는 의식이다.

90) ‘今夜鄜州月 / 閨中只獨看’.

91) 金明姬, <杜詩에 나타난 달의 이미지考-人間的 要素를 中心으로->, 『杜詩研究論叢』 (二友出版社, 1982) 339-360면. 참조.

92)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千里歸心看月色 / 五更殘夢待鷄聲: 천리고향에 돌아가고픈 마음으로 달빛을 보며 / 오경 남은 꿈속에서 닭소리를 기다리네’ (<初秋夜吟> 本集 권1, 163면) ‘瓊瑤詠罷荒城暮 / 海月分明兩地垂: 아름다운 시를 읊으니 황량한 성이 저물어 가고 / 바다에 떠있는 달은 분명히 고향에도 비추리라’ (<次安知堂韻> 本集 권1, 165면).

| | |
|----------------------|------------------------|
| 嗟吾父與子 | 슬프도다 우리 부자는 |
| 何若至於斯 | 어이하어 이토록 기구한가 |
| 四年再來見 | 사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
| 暫逢長別離 | 만나자 곧 오랫동안 헤어져야 하다니 |
| 人生非木石 | 인생은 목석이 아니니 |
| 到此將何其 | 이렇게 되어 어이 하리오 |
| 乃翁性純愚 | 늙은이 성품이 어리석어 |
| 遇事不守雌 | 일을 당하여 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네 |
| 北塞昔風霜 | 전에는 북쪽 변방에서 풍상을 겪었고 |
| 南溟今纏徽 | 지금은 남쪽 바다의 유배객이 되었구나 |
| 有母年八旬 | 어머니 연세 팔순이건만 |
| 無由報春輝 | 그 은혜 보답할 길 없고 |
| 妻兒不相保 | 아내와 아이들 돌보지도 못하고 |
| 弟兄各分飛 | 형제들 역시 각기 나눠 사는구나 |
| 望雲幾浩襟 | 구름을 바라보며 자주 이불깃을 젖히고 |
| 見月空費思 | 달을 보며 생각에 사로 잡히네 |
| 不孝與不慈 | 불효와 부자를 |
| 而我身兼之 | 내가 겸하고 있으니 |
| 一死誠未難 | 죽는 것이 정녕 어렵지 않구나 |
| …… | (중 략) |
| 持身貴篤敬 | 독실하고 공경함으로 처신하고 |
| 發言戒誕支 | 말 할 적에는 거짓말을 경계하거라 |
| 近色易佞性 | 색을 가까이하면 본성을 해치기 쉽고 |
| 嗜酒多失儀 | 술을 즐기면 흔히 품위를 잃는다 |
| 到處念吾言 | 언제나 내 말을 명심하여 |
| 毋爲人笑譏 ⁹³⁾ |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라 |
| …… | (하 략) |

아버지인 동계가, 유배지에 찾아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 가는 長子 昌詩에게 써 준 이별시이다. 60句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 부분에서는 힘겹게 遭遇한 자식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구절은 ‘일을 당하여 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네’라는 고백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유학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삶을 살았던 동계의 모습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즉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한 심각한 회의

93) <贈別昌詩還鄉> 木集 권1, 170면.

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不孝 不慈를 장자가 대신해야 한다는 간곡한 부탁과 자식에게 주는 훈계를 적고 있다. 동계는 유배 중에 자식에 관한 10여편 정도의 작품을 남겼다. 유배지에서 자식을 염려하고 그리워하거나 적거지에 찾아온 자식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과 안타까움, 老母를 잘 봉양하라는 당부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주는 훈계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 | |
|----------------------|-------------------------|
| 蕭蕭秋雨裡 | 쓸쓸한 가을비 속에 |
| 脈脈客愁新 | 끊임없이 나그네 수심 일어나네 |
| 白首非干祿 | 백발의 나이에 벼슬을 하려는 것 아니었으니 |
| 青山不負人 | 청산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구나 |
| 寧嫌沾鰓直 | 차라리 뜻을 굳고 곧게하여 미움을 받더라도 |
| 只欲補楓宸 | 조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이었다 |
| 夢人龍丘下 | 꿈속에서 용산 언덕 아래로 가고 |
| 魂飛 ⁹⁴⁾ 嶺濱 | 혼은 역양 물가로 날아 가네 |

벼슬에 있으면서 筓字를 올린 후의 감회를 회상하고 있다. 환로에 있으면서 자신을 ‘客’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자신은 바르고 곧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러한 자신의 신념을 받아 드리지 않는다. 일생동안 치우치고 꺾어진 것을 바르고 곧게 하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배척을 당해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두번째 行에 보이는 ‘愁’는 다른 詩篇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詩語는 동계의 정조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동계 시에 나오는 ‘愁’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촉발된 일시적인 우수, 근심이라기보다는 가슴 속 깊이 숨겨진 불만, 억울함, 한탄의 감정이다. ‘秋雨’에 의해 촉발된 동계의 근심은 정치적 상황에 의한 것으로 一身에 대한 근심과 나라에 대한 근심이다. 정치적 상황에서 ‘鰓直’

94) <남筓 11 夜坐偶吟> 本集 권1, 158면.

하게 대처하여 조정의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이러한 신념이 거부당한데서 느끼는 것이 一身에 대한 근심이고, 동시에 淸濁, 賢愚를 분별하지 못하는 現世에 대한 근심이다. 이러한 근심때문에 안온과 평화로운 세계로의 退行意識을 보여 준다. '용산 언덕' '역양 물가'는 동계의 고향산천으로서 혼란한 정치현장과는 대립적인 의미로 쓰인다. 고뇌와 근심의 원천은 현실에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 고뇌와 근심을 풀 수 없을 때 고향 혹은 자연을 동경하는 것이다. 이때 고향, 자연은 정치적 도피처 혹은 안주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결국 동계는 굳은 신념, 충신 등으로 조정에서 거부당하고 不遇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동계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신하면서도 강인하게 버티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 혹은 망각하려는 경향을 보여 준다. 또 역사적으로 동일한 처지에 놓였던 인물에 대한 경도로서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는다. 一身에 대한 우수, 비애, 고독의 정조는 차츰 고향과 그곳에 계신 부모, 형제, 처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변해간다.



3. 自然에의 沈潛과 內面化

이頃の 작품들은 주로 유배 말기와 某里 은거기에 쓰여졌다. 自我의 本源을 추구하는 心性修養의 시는 유배 말기에 쓰여진 작품들이다. 동계는 유배 말기에 고독과 향수, 소외 등 어두운 제감정을 극복하고 심정적 여유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작품을 쓴 것이다. 유배라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이었고, 이러한 선택은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의식의 발로였다. 병자란 후 모리에 은거했던 것 역시 道理가 무너진 정치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서이다. 이때의 자연은 道の 具現體라는 의미를 가지며 자연에

로의 沈潛은 道 · 天理의 順應을 의미한다. 유배는 외부에 의해 정치현장에서 추방된 경우이고, 은거는 스스로 정치현장에서 벗어나 山林에 묻힌 경우이다. 이 둘은 모두 정치현장이 아닌 山林에 거처했을 때 쓰여졌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유배말기에 자연의 선택은 정치적 패배로 인한 것이었다면 병자란 후의 某里 은거는 세상에 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연에 숨은 경우이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동계가 자연을 찾았던 입장과 처지가 다르게 보이지만 그의 생애 전체로 볼 때 이 둘은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두 경우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피처로서 자연을 선택한 경우이다. 즉 동계는 유배말기부터 이미 정치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정치현장에서의 자아의 실현보다는 자연에서의 심성수양을 통한 내면적인 자아의 실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수신은 유학자의 본원적인 문제인 동시에 世界에 나아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된다. 동계의 경우 자기성찰과 수양은 선비로서의 참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갖은 정치적 패배로 인해 동계는 차츰 내면적인 성향으로 '편향성'을 보인다. 특히 10년간의 유배를 거치면서 그의 정치현장에서의 道의 실천의지는 관념적이고 내면적인 성향으로의 커다란 변모를 보여 준다.

동계가 인조반정 후 해배되어 정계에 나갔던 것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였다. 그러나 인조반정 후에 인성균 옥사 등으로 이상실현에 대한 기대가 또 다시 무너지면서 정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포기하고 자연으로 귀의하고 만다. 그곳에서 동계는 道心에 歸依 和平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아가 宇宙와 人生의 眞理를 찾으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유배기에 어둡고 절망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讀書를 통한 修養의 단계로 들어가는 意識의 변모를 살펴보자.

| | |
|-------|------------------|
| 孤身南斗近 | 외로운 몸은 남두 가까이에서 |
| 望眼北辰尊 | 눈은 북두성의 높음을 바라보네 |

| | |
|----------------------|--------------------|
| 已作傷弓鳥 | 이미 활에 상처입은 새이고 |
| 還同失木猿 |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와 같구나 |
| 窮通付時命 | 막힘과 통함은 시명에 달려 있고 |
| 生死任乾坤 | 죽고 사는 것은 천지에 달려 있네 |
| 獨坐披經史 | 홀로 앉아 경사를 펼쳐 |
| 要求往哲論 ⁹⁵⁾ | 옛 선현들이 말을 공부한다 |

유배 초기의 고뇌와 절망을 어느 정도 극복한 뒤 독서를 통한 수양의 단계로 접어 드는 동계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1 - 4행까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유배객으로 남쪽 끝에 있어 임금을 輔佐할 수 없는 입장이다. '활에 상처 입은 새'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는 정치적 좌절을 겪고 있는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5 - 6행에서 보이는 '체념에 의한 현실의 수용'은 동계의 의식의 偏向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窮通과 生死를 時命과 天命으로 돌리고 나니 현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와 방황은 사라진다. 窮達 즉 곤궁하게 되고 출세를 하는 것은 人事가 아니라 時命이며, 生死는 역시 天命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을 수용하는 한 방법으로 좌절과 향수를 극복할 수 있는 심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새로운 국면의 의식의 전환을 예견할 수 있다.

동계는 정치현실에서 그 이상실현을 좌절했기 때문에 현실 사이에 갈등을 정리하고 현실에서의 이상실현보다는 자연에의 내면적인 자아실현의 길을 선택한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 사화와 당쟁을 거치면서 정치적 시련, 패배을 경험한 많은 사람의 경우와 맥을 같이 한다. 세계에 道理가 무너졌음은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질서의 붕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道の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세계의 질서의 회복임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정치적 시련과 좌절을 통해 질서회복에 대한 가능성에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가능성을 포기하고 自然에 歸依 한다.

95) <獨坐> 續集 권1, 295면.

人性의 수양과 자연에의 침잠을 통해 인간본연의 성정을 회복하고 천리와 의 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절망적 한탄과 방황에 머무르지 않고 초극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定向을 추구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 | |
|----------------------|-----------------------|
| 養梅見冷蘂 | 매화를 키워 찬 꽃술을 보고 |
| 養松聞風聲 | 소나무를 키워 솔바람 소리를 듣는다 |
| 養竹蔭清陰 | 대나무를 심어 맑은 그늘을 만들고 |
| 養菊餐落英 | 국화를 심어 떨어진 꽃잎을 먹는다 |
| 問之何能養 |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냐고 물으면 |
| 莫若剪榛荆 | 가시나무를 자르는 것만 같은 게 없디네 |
| 養心何異此 | 수양하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리오 |
| 先除私欲萌 | 먼저 사욕의 싹을 버리는 것이네 |
| 除欲豈徒爾 |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뿐이겠는가 |
| 妙法在惺惺 ⁹⁷⁾ | 묘법은 두려워하는데 있다네 |

동계는 유배지에서 울타리 안에 '竹, 梅, 松, 菊'을 심어 四友라 칭한다. 이는 四君子와 같은 의미로서 자연물의 玩賞을 통해 그 곳에 내재된 常道, 常理를 깨닫고 인성을 수양하고자 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UNIVERSITY LIBRARY

野梅 한그루를 집의 동남쪽 모서리에 심고 …… 또 叢竹을 옮겨 집의 동쪽 남쪽 서쪽 세 모서리에 심고 …… 또 어린 소나무 여러 그루를 한라산정에서 캐다 심었다. …… 또 황국을 꺾어 소나무 아래에 심었다. …… 서리를 기다려 향기를 뿜으니 향기와 아름다움이 평상시와 달랐다. 이런 것이 울타리 안에 있어서 눈에 아름답기가 이와 같았다. 이에 鼓鼓子가 道冠을 쓰고, 竹節을 끌어 四友의 사이를 소요하며, 蒼髯을 어루만지고 향귀를 방문하고 맑은 그늘에서 떨어진 꽃잎을 먹노라면 해지는 줄 모른다.⁹⁸⁾

97) <閑中雜詠> 木集 권1, 170면.

98) <答林樂翁問> 壬戌, 木集 권2, 199-200면. 移野梅一叢 植于屋之東南角 …… 又移叢竹 植于屋之東南西三隅 …… 又取雉松於漢壑頂上 種至數十本 …… 又栽黃菊於松之下 …… 待霜發 馥 香艷異常 此則籬內之有 而媚於日如此 於是鼓鼓子着道冠曳竹節 逍遙於四友之間 撫蒼髯 訪香魂 蔭清陰而餐落英 不知日將暮矣.

四友 사이를 소요하면서 ‘찬 꽃술을 보고, 솔바람 소리를 듣고, 떨어진 국화를 먹으면서’ 현실의 고뇌를 잊은 것이다. 사우의 완상은 現世의 속박과 物慾에서 벗어나 자아를 성찰하고 심성을 수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동계는 사우를 심은 이유에 대해 ‘나와 함께 상설계를 만들어 / 고요한 가운데 마주 대하여 감회를 나누자꾸나’⁹⁹⁾라고 읊고 있다. ‘상설계’를 만들어 감회를 나누고 고요한 가운데 사우를 관조하면서 몸과 마음을 닦고자 한 것이다. 사우를 심은 것은 그것을 매개로 道義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한 것이다. 天賦의 性은 存心省察에 의해 확충될 때 天과 合一할 수 있다. 人心은 利로써 세상과 교섭하기 때문에 善으로써 세상과 교섭하는 道心을 기르기 위해서 存心省察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위적인 규범이 있어야 한다. 이때 자연에서 인위적 규범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의 性은 本然의 純善이므로 자연의 규범성을 찾아 내고 그것을 따르면 純善에 이를 수 있다.¹⁰⁰⁾ 동계가 자연에서 규범성을 찾아 내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로 멀리 할 수 없는 현실을 관념 속에서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패배와 시련을 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자연의 규범성이라는 관념에 안주하려는 것이다.

동계가 자연에서 이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수양의 실마리로 삼았던 것은 <庭草交翠>란 賦에 잘 드러난다. 物과 我是 나란히 나서 비록 하찮은 풀과 나무지만 氣를 품수 받아 生成된 것이니, 거기에는 지극한 이치가 있다는 것이다.

무성한 것이 잃어버리는 때를 두려워 날마다 대하여 얼굴을 펴니, 지극한 이치가 이에 있는 것이 기쁘구나. 오직 好生之德을 나와 물이 함께 얻어서 저 풀의 자람을 돕는다. 내 인의 확충됨이 나날이 무성하여 그치지 않음을 깨달으니 또한 학문 하는 법이라. 물로써 물만을 보지 말지니 오직 선생이 이에 있느니라. 목격하는 것을 따라서 도를 체득하고 미물을 빌려서 이치를 밝히니 이러한 마음이 족히 인이 된다. 가히 推擴하고 位育하여 일찍이 조정에 등용되고 群生을 보좌하는 것이다. 하늘은 平治 하

99) <偶吟> 二首 本集 권1, 145면. ‘與我共成霜雪契 / 靜中相對好懷開’.

100) 최진원, 『國文學과 자연』(成均館大 出版部, 1977), 56-64면.

고자 하지 않아도 마침내 空谷에 그윽한 난향이 풍긴다.101)

동계는 정원에 풀이 나고 비와 이슬을 받아 점점 무성해지는 현상을 관찰하면 好生之德을 길러 仁을 擴充할 수 있다고 했다. 학문을 하는 법은 物을 단순한 物로 보지 말고 그것을 선생으로 여겨 物에서 道를 체득하고, 이치를 밝히는 것이라 여긴 것이다. 이처럼 그는 자연을 常道 常理의 具現體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심성을 수양하고 宇宙流行의 묘미를 읽으며 性情之正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즉 자연은 敬을 위로한 存養省察과 居敬窮理의 공간이다. 조용하고 한적한 자연 속에 묻혀 순수한 자아를 추구하고 만물이 和育하는 天理의 변화를 관찰하며 그것에 순응하려는 것이다.

“靜中相對”는 조용한 시간에 平靜無邪한 마음으로 사물을 관조하며 심성을 陶冶함을 의미한다. ‘靜’이란 ‘心不妄動’¹⁰²⁾이다. “후에 이 그림을 보는 자는 난초로서 난초를 보지 말고 선생의 馨香의 德을 생각하고, 대나무를 대나무로 보지 말고 淸直의 節概를 생각해야 한다.”¹⁰³⁾라고 한 처럼, ‘野梅’를 보며 傲霜孤節을 생각하고 ‘叢竹’을 보면서 節概를 다졌던 것이다.

앞의 시 7 - 10행은 심성수양에 대한 동계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 사우를 잘 자라게 하려면 잔가지를 잘라야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닦는 데에는 私欲을 버리는 것이 우선이다. 즉 유학자에게 수양이라는 것은 靜의 세계에서 私欲을 제거하는 것이다. 고요한 가운데서 사욕을 끊고 나서야 마음이 안정되고 진리로 접근할 수 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과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계

101) <庭草交翠> 續集 권1, 305면. 恐峻茂之失時 日相對而怡顏 喜至理之在茲 惟好生之一德 物與我而共得 相彼草之方長 悟吾仁之當擴 而日茂而不止亦 可法以爲學 不以物而視物 惟先生分有是 隨日擊而體道 假微物而明理 是心足以爲仁 可推廣而位育 倘登庸於廊廟 宥群生而咸若 天不欲其平治 竟幽蘭於空谷.

102) 『大學』 제1장 註.

103) <趙靜菴先生題蘭竹七絕後序> 本集 권2, 184면. 後之觀斯畫者 不以蘭視蘭 以思先生馨香之德 不以竹視竹 以思先生淸直之節.

의 생각은 <少欲覺身輕>이란 賦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직 몸이 구부러진 것은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가볍게 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욕심을 버리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버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반드시 主一 하여야 한다. 主一하는 공이 이루어지면 시원한 곳으로 나갈 수 있다.¹⁰⁴⁾

몸을 가볍게 하여 登天하기 위해서는 道家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비법이나 약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主一無適의 수양법으로 욕심을 없애야 한다. ‘出寥廓’는 것은 신선 등의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天性을 회복한 군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군자가 심성을 기르는 것은 반드시 이 욕심을 힘써 버리는 데 있으니 입과 코로 냄새와 맛을 절제하고 귀와 눈을 어지럽히는 것을 멀리하고 四肢가 妄逸하는 것을 경계하고 百骸의 검속을 요구하여 汗馬의 奇功을 거두고 方寸의 적을 이긴 것을 말한다.¹⁰⁵⁾

인욕을 버리면 天理의 流行이 온화해지고 정신이 맑아져 하늘을 우러러도 땅을 굽어 봐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귀와 영화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다. 사람의 마음은 위태로워서 物欲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성현의 千言萬語가 다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동계는 수백권의 책을 읽으면서 유배기간을 보낸다. 다음 시를 보면 그의 독서 범위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太極淵奧旨 태극은 심오한 뜻이 있고

104) <少欲覺身輕> 續集 권1, 303면. 惟身之屈 惟欲之汨 輕之伊何 莫如少欲 少之伊何必也 主一 功成 可出寥廓.

105) 위와 같은 곳. 肆君子之養心 必務去乎斯欲 節臭味於口鼻 遠淫亂於耳目 戒四肢之妄逸 要百骸之檢束 收汗馬之奇功 奏方寸之克敵.

| | |
|-----------------------|-----------------------|
| 東西親切銘 | 동명, 서명은 친절하구나 |
| 程門箴四勿 | 정자선생은 四勿箴을 만들고 |
| 眞氏讚心經 | 진씨는 심경을 편찬하고 |
| 蘭溪論心語 | 난계는 심어를 논하고 |
| 晦翁主敬篇 | 주희는 경편을 위주로 삼았다 |
| 況此九像贊 | 더욱더 이 구상을 기린다면 |
| 分明對諸賢 | 분명히 모든 현인들과 만날 수 있으리라 |
| 靈均皎潔詞 | 굴원은 교결한 초사를 짓고 |
| 孔明忠貞表 | 제갈량은 충정의 출사표를 지었네 |
| 行年自知非 | 지난 세월은 스스로 그른 것을 알아 |
| 莊誦每清曉 | 엄정하게 매일 맑은 새벽에 암송하리라 |
| 除却疾病外 | 질병을 떨쳐 버리고 |
| 唔咿常不休 | 글 읽는 소리 항상 끊이지 않게 하리라 |
| 只要無大過 | 다만 큰 허물이 없기를 바랄 뿐 |
| 安敢企前修 ¹⁰⁶⁾ | 어찌 감히 옛 군자를 도모하리오 |

동계는 송나라 여러 성리학자들의 道學書, 修身書를 읽으면서 心工夫에 沈潛하고 굴원과 제갈량의 글을 통해 忠情을 다짐했을 것이다. 古書의 탐독을 통해 근심과 고뇌를 삭이고 眞知에 도달하고자 한 것이다.

태수가 나를 위하여 書室 2칸을 만들어 주었다. …… 또 방 동쪽 벽에 書閣을 두어 經史 수백여권을 정돈하여 두었다. 총관을 쓰고 도복을 입어 그 안에 거처하며 한 가해지면 책을 펴면 졸음이 오고, 지리했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욕심이 사라졌다.¹⁰⁷⁾
 난간에 일어나 앉아 위태롭게 책상을 대하면 책상 위에 수백권 책이 있는데 經史가 섞여 있다. 濂洛關閩의 書가 많이 놓여 있었다. 宋諸賢 圖說, 箴, 銘, 贊 10편과 굴원의 복거, 어부 3편과 제갈량의 진출사표를 즐겨 읽었다. …… 매밤 닭이 처음 울면 단정히 앉아 책을 읽고 질병이나 우환이 없으면 廢하는 일이 없었다.¹⁰⁸⁾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本性을 잃지 않아야만 정성된 天心에 이를 수 있다. 存心養性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眞知를 이루어야

106) <護書> 本集 권1, 170면.

107) <大靜縣東門內閣籬記> 本集 권2, 174면. 太守爲吾作書室二間 …… 又房東壁失窓下 置書架二層閣 經史數百餘卷整頓不亂秩 着聽冠服道衣 居處其中 閑來展卷 睡到頭 泊如也.

108) <答林樂翁問> 壬戌 本集 권2, 200면. 興闢則輒危坐對案 案上有書數百卷 而經史相雜 濂洛關閩之書 又居多焉 …… 仍誦有宋諸賢 圖說箴銘贊十餘篇 及屈三閩卜居漁父三篇諸葛忠武侯前出師表 非有疾病憂患 未嘗廢也.

한다. 즉 성인의 경전에 침잠하여 性情의 方正을 지키고 史書의 탐독을 통해 사리판단 능력을 키우는 학업을 先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배말기에 이루어지는 동계의 독서를 통한 현실의 수용과 절망적인 제감정의 극복을 읽을 수 있다. 독서를 통한 心性の 수양은 齊治 주의 전단계로서의 의미보다는 유학자의 본원적 문제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미 동계는 齊治 주의 꿈은 좌절 되었다. 그것에 대한 강한 신념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現實에서 이상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회의를 갖기 시작하면서 內面的인 심화의 국면으로 의식변화를 보여 준다.

| | |
|-----------------------|----------------------|
| 夜半塊然坐 | 밤중에 홀로 앉으니 |
| 心源自在清 | 심원이 자연히 맑아지네 |
| 七情元未發 | 칠정은 발하지 않고 |
| 萬念寂無萌 | 모든 생각은 고요하여 나지 않고 |
| 圓鏡新光潤 | 둥근 거울에 새로운 빛이 소용돌이치고 |
| 方塘止水明 | 모난 연못 고인 물이 밝구나 |
| 何由保斯體 | 무엇으로써 이 몸을 보존할꼬 |
| 持敬是工程 ¹⁰⁹⁾ | 공경을 가지는 것이 공정이네 |

외부 세계와 단절된 靜의 세계에서 存心省察하는 道學者의 모습이다. ‘夜, 塊然, 清, 未發, 寂’ 등의 詩語가 자아내는 정적인 세계는 人欲이 수반되는 세계의 어지러움이 단절된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無慾의 세계이며 本性을 회복하려고 하는 道學者의 세계이다. 밤중에 홀로 앉아 있지만 그리움이나 소외감, 고독감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깨끗해지고 있다. 이제 밤은 어둡고 절망적인 의미가 아닌 心性修養의 조용하고 맑은 의미지로 쓰인다. 淸淨한 밤기운과 함께 淸明한 良心을 회복하여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圓鏡’, ‘方塘’은 각기 智慧와 行實을 비유한 것이다. ‘둥근 거울에 새로운

109) <夜坐> 本集 권1, 156면.

빛이 소용돌이치고 / 모난 연못 고인 물이 맑구나'는 뜻이 정하여지니 마음이
고요하고 몸이 편안하여 道를 생각할 수 있는 단계를 비유한 것 같다. '무엇으
로써 이 몸을 보존할꼬 / 공경을 가지는 것이 공정이네'는 회복된 본연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敬'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敬'이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보고 들음에 규칙이 있고 언행이 예절에 벗어나지 않 存
心省察에 있다.

終身토록 행해야 하는 것은 聖訓의 敬이며 이것으로 존양성찰하면 道學에
이르는 길이 된다. 一心의 虛靈함으로 만사를 주재해야 하는데, 마음은 근본이
활달하여 그 출입에 때가 없고 그 고향을 알지 못하니 이러한 마음을 보존하려
면 敬이 필요하다.

밖에서 덕을 모이게 하는 소이는 邪念을 버리고 誠意를 보존하는데 있고 안에서
바르게 하는 소이는 시종을 한결같이 하여 오직 精微하게 하고 動靜을 관통하여서 쉬
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홀로 있으면서 물이 새는 집에 있는 것 같이하면 부끄러움이
없고 이로써 무리가 모인 곳에서도 威儀의 孔顯이 보이게 된다. 문을 나갈 때에 두려
워하며 삼가하고 큰 손님이 없어도 보는 것 같이하고 숙연히 섬기는 때에 큰 제사를
하지 않아도 있는 것 같이해야 하니 이것이 居敬의 極功이다. 조금이라도 쉬거나 혹
폐하는 일이 없고 마음이 항상 腔子에 있어야 한다. 어찌 환란에 개를 거두지 못하겠
는가. 만가지 이치가 靜 중에 엮매어 있으니 소양의 천유를 보지 못하면 누가 道學의
극명함을 알겠는가. 진실로 일념이 惶惶에 기반하여 비록 학문에 나아가는 여러 방향
이지만 이것이 길을 얻는 관문이니 知致하고 物格하는데 진실로 啓鑰이라.¹¹⁰⁾

居敬은 窮理의 기반이 된다.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학문에 정진하면 致
知, 格物을 할 수 있다. 道의 근본은 활달하여 그 실마리를 예측하기 어렵고 마
음은 物에 응하여도 보존하기 어렵고 잃기 쉬우므로 敬을 위주로 하여야 마음

110) <敬> 續集 권1. 303-304면. 正衣冠兮尊瞻視 外之所以聚德 閑邪念兮存誠意 內之所以爲
直 恒始終而惟精 貫動靜而不息 以之居獨 對屋漏而無塊 以之處衆 見威儀之孔顯 惕若於出
門之際 無大賓而如見 肅然於承事之時 不大祭而如在 斯爲居敬之極功 無一息之或廢 心常在
於腔子 豈患難犬之不收 困萬理於靜中 不見牛羊之踐蹂 誰知道學之克明 實基一念之惶惶 雖
進學之多方 斯得路之關屨 知之致兮物之格 實於此乎啓鑰.

을 잡아 道學에 이를 수 있다. 敬은 마음이 動할 때나 靜할 때나 다 지켜야 하는 것으로 日常生活에서 한시도 떠나서는 안되는 수양의 방법이다. 敬을 통해서만 인간된 所以를 드러낼 수 있고 聖學의 目的에 도달할 수 있다. 敬을 위주로 居敬窮理와 存養省察은 유학자들에게는 자아의 본원적인 문제이자 治人の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 | |
|-------------------------|-----------------------------|
| 曉鷄聲裡夢初回 | 새벽 닭소리에 꿈에서 깨어 |
| 起坐五更愁未開 | 오경에 일어나 앉으니 수심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
| 默念古書成一誦 | 묵묵히 앉자 고서를 한번 암송하고 |
| 靜觀物理究三才 | 사물의 이치를 고요히 보고 삼재를 궁구하네 |
| 卷中至樂人誰識 | 책 중 지극한 즐거움을 누가 알까 |
| 世上浮榮心已灰 | 세상에 헛된 영화 바라는 마음은 이미 재가 되었네 |
| 氣清明無外累 | 한가닥 기운은 청명하여 밖에서 누를 끼치지 않고 |
| 西窓柱影照襟來 ¹¹¹⁾ | 서창에 계수나무 그림자 자리에 와 비추는구나 |

고요하고 清逸한 새벽에 平靜한 마음으로 古書를 통해 物理를 관조하고 才의 理致를 窮究하는 즐거움을 읊고 있다. 체념을 통해 ‘세상에 헛된 영화 바라는 마음은 이미 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움과 향수, 소외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욕을 떨치니 一身, 家族, 나라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고, 虛靜한 마음으로 格物致知 할 수 있는 것이다. 3 - 6행은 독서를 통해 심성을 수양하는 道學者의 모습이라면 7 - 8행은 자연과의 조화를 읊고 있다. <夜頌宋儒箴銘>의 마지막 행에 ‘빈 방에 달과 별이 비치는구나’¹¹²⁾라는 표현에서 ‘빈 방’은 세속적 욕망을 극복하여 虛靈淸淨한 道心을 회복한 자신의 모습이다. 이곳에 ‘달과 별이 비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과 자연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道心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天理의 구현체인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111) <曉坐誦書> 木集 권1, 161면.

112) 虛室月星臨.

| | |
|-----------------------|----------------------|
| 如眉漸如鏡 | 눈썹같은 달이 점점 거울 같아지더니 |
| 三五方就盈 | 십오일 만에 가득찬 보름달이 되는구나 |
| 盈而虧必至 | 차면 기울고 |
| 虧則盈還生 | 기울면 차서 다시 환생하는 것을 |
| 天道日如此 | 천도 또한 이와 같으니 |
| 人情尤可明 | 인정은 더욱 분명하리라 |
| 莫羨彼之盈 | 저 달이 차는 것 부러워말고 |
| 莫嘆此或虧 | 달이 기울어짐을 탄식하지 말라 |
| 嘗聞天與鬼 | 일찍이 들으니 하늘과 귀신은 |
| 盈者常害之 | 찬 것을 항상 해친다고 |
| 見月反吾人 | 달을 봄으로써 도리어 우리에게 |
| ·理君其知 ¹¹³⁾ | 한가지 이치를 알게해 주는구나 |

달이 찻다가 기울어지고 다시 차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우주 운행의 이치와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 눈썹같던 달이 점점 거울같이 차면 다시 기운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은 음양이 조화이며, 음양이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道이다. 이 道는 우주의 운행뿐만 아니라 人情에도 적용된다. 盛이 극에 이르면 그 속에서 한가닥 衰가 움직이고, 衰가 극에 이르면 한가닥 盛이 움직여 결국 盛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盛衰와 榮辱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天道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져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앞에서 밤이 앞 項과는 다른 의미지로 쓰이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 달 역시 앞 項에서는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매개체로 쓰였지만 이 項에서는 道의 具現體라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지로 쓰인다. 같은 작가에 의해 선택된 제재이지만 작가의 심사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보여 준다. 즉 작가 의식의 변모는 사물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 줄 수 있다.

113) <見新月> 本集 권1, 169면.

此日幽潛未或非 오늘 그윽한 곳에 은거함은 그릇된 일이 아니고
 況耕無稅可療飢 하물며 밭 갈아 세금이 없으니 배고픔을 달랠 수 있네
 爾曹莫歎臨年苦 너희들은 괴로움에 처했다고 탄식하지 말라
 志遂身安道亦肥¹¹⁴⁾ 뜻이 이루어지고 몸이 편안하니 도가 또한 살진다.

동계는 병자란 때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수치를 참을 수 없다고 하여 할복을 기도 한 후, 남한산성에서 나와 某里로 들어가 終老之地로 여겼다. 某里는 덕유산 기슭으로 수림이 울창하고 인적이 끊어진 곳이다. 동계는 그곳에 풀과 나무를 엮어 집을 지어 某里鳩巢라 하고 山田을 개간하여 보리와 차조를 심어서 自養하였다. 자식들이 그 거처와 음식이 苦薄한 것과 동계가 은거하는 골짜기에 泉石이 없는 것을 근심하여 精舍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청한다. 이에 동계는 “내가 오늘 어찌 그 거처를 아름답게 꾸미고 산수의 경치를 즐길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며 2편의 詩를 지어 보여 준다.¹¹⁵⁾ 위에 인용된 시가 그 첫 번째이다. 그럼 某里는 어떤 곳이며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늙음이 지극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毀譽와 欣憾을 알지 못하고, 부역과 조세를 재촉하는 관리를 보지 못하고, 조정의 黜陟과 擢援을 듣지 못하니 이에 고고옹은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한가롭다.¹¹⁶⁾

‘단쳐오는 영욕은 꿈 속에서 부질없는 것’¹¹⁷⁾ ‘삶과 죽음 아침 저녁됨을 어찌 탄식하리오’¹¹⁸⁾라는 진술에 나타나 있듯이 영욕과 생사와 주야는 자연의 법칙일뿐 人間事가 아니다. 이러한 것에 얽매어 있던 俗世를 벗어났기 때문에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한가로운 것이다. 정치적 혼란기에 宦路에 나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항상 田園을 동경하다가 이제서야 그 뜻이 이루어졌다. 俗世

114) 年譜 428면.

115) 위와 같은 곳. 참고.

116) <某里鳩巢記> 本集 권2, 176-177면. 不知老之將至焉 不知人間之有毀譽欣憾焉 不見催科督賦之官吏焉 不聞黜陟擢援之朝政焉 於是鼓翁身安心逸.

117) <自歎偶吟> 續集 권1, 300면. ‘向來榮辱夢中虛’.

118) 年譜 429면. ‘死生朝暮何須歎’.

를 떠나 산림에 묻히니 누추한 거처와 거친 밥이지만 오히려 즐겁고 편안해진다. 이 詩의 핵심은 '肥'에 있다. 肥는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을 의미한다. 某리에 은거하는 동계를 풍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某리를 찾아온 손님과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진 글을 통해 은거지에서 추구했던 삶의 모습을 추적할 수 있다.

객이 말하길 “이것은 곧 명을 듣는 것이다. 그대의 일생을 보면 일찍이 절개를 지키고 검속하지 않음이 없었다. 오늘은 관을 쓰고 머리를 감추지도 않고 옷을 입어 띠를 띠지도 않고 앉아서 두 다리를 뻗으니 어찌 된 것인가. 또 그 거처가 누추하고 음식이 담백하니 무엇으로써 그 고통을 견디는가”

“그대는 일찍이 산속의 늙은이가 머리를 감추고 띠를 띠고 위태롭게 앉는 것을 보았는가. 화려한 집과 맛있는 반찬은 산속 늙은이를 위한 것이겠는가. 그대는 某가 아니니, 어찌 某의 뜻을 알겠는가. 이는 某의 이름을 감추고, 某의 종적을 숨겨 세인들이 하여금 某에서 노는 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¹¹⁹⁾

동계가 某리에 들어 간 것은 고상한 이름이나 潔身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욕심없이 자연에 묻혀 자연의 입법대로 살아가는 산속 늙은이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산속 늙은이에게는 선비들이 갖추어야 하는 의관과 몸가짐이 필요치 않다. 그것 역시 인간을 구속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 주든 알아 주지 않든 자신에게는 무관하다. 자신의 뜻과 이름과 종적을 감추고 자연 속에게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겸허함과 초탈함의 경지다.

| | |
|-------|---------------------|
| 人皆羞白髮 | 사람들은 모두 백발을 부끄러워하지만 |
| 我獨愛無私 | 나는 홀로 사심이 없음을 사랑한다 |
| 衰境理宜有 | 늙음은 마땅한 이치요 |
| 少年能幾時 | 젊은 날이 언제까지 계속되리오 |
| …… | (중략) |

119) <某里鳩巢記> 本集 권2, 177면. 客又曰 此則聞命矣 觀子之一生 未嘗不修節檢束也 今則冠而不緝髮 衣而不束帶 坐而箕踞者 何歟 且其居處之陋 飲食之淡 何以堪其苦歟 曰 子嘗見夫山叟野老之緝髮束帶而危其坐者乎 華屋美饌而爲山叟野老者乎 子非某也 焉知某之志哉 自是藏某之名 秘某之迹 使世人不知某爲誰某而遊於某里之中也.

| | |
|-----------------------|---------------------|
| 皎潔秋霜色 | 회고 깨끗함은 가을의 서리요 |
| 清高老鶴姿 | 맑고 높음은 노학의 자태라네 |
| 臨杯疑散練 | 술잔을 잡으니 비단이 드리운 것같고 |
| 人鏡樣垂絲 | 거울을 보니 드리워진 실 같구나 |
| 自是相隨物 | 이로하여 物理를 따르는데 |
| 何須鑷去爲 ¹²⁰⁾ | 어찌 뽑으리오 |

죽음 직전에 某里에 은거하며 쓴 작품으로 백발 혹은 늙음을 이치로 받아 드리는 겸허함과 고결함을 엿볼 수 있다. 앞 項에서 보았던 '흐르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차원이 다르다. 늙음을 이치로 받아드리고 나니 근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백발을 교결하고 청고하다고 표현하면서 物理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다짐하고 있다.

| | |
|-------------------------|-----------------------------|
| 骨餘森列似金剛 | 뼈는 죽 늘어져 금강석 같아 |
| 嚼物先須擇硬強 | 음식을 씹는데 먼저 굳은 것을 택하였네 |
| 六十年來搖落盡 | 욕심이 되어 다 흔들어 떨어 지니 |
| 如知柔舌尙無傷 | 부드러운 혀가 무탈함, 자랑하는 걸 알 것 같구나 |
| 右邊空豁在邊稀 | 오른쪽은 텅비고 왼쪽은 드물어 |
| 稀者孤危不可支 | 드문 곳은 위태로워 버틸 수가 없구나 |
| 若過數句俱脫去 | 수십일이 지나니 다 빠지겠지만 |
| 樂夫天理更何悲 ¹²¹⁾ | 천리를 기뻐할 것이지 어찌 슬퍼하리오 |

죽음 직전에 某里에 거처하며 쓴 작품으로 황혼녘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겸허함과 고결함을 엿볼 수 있다. 이가 빠지는 것에 대한 동계의 느낌은 단순하지 않다. 자신의 인생을 통찰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금강석 같아'는 의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굽히 줄 모르는 氣概로 그 이상을 실천해 온 동계의 인생을 비유한다. '굳은 곳을 택하였네'는 일상생활이나 정치현장에서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행동했던 과거를 의미한다. 정치적 시련을 겪고 세계의 無道함

120) <白髮> 本集 권1, 168면.

121) <齒落數> 2首 권1, 150면.

을 경험한 지금에 와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금강석 같은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 같은 처신이 무탈함을 깨닫는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날씨가 추워져 울타리에 심은 국화가 시드는 것을 보고 애석해하며 향기로운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 가리개를 만들라고 권유한다. 이에 동계는 손님의 권유를 사양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
|-----------------------|-----------------------|
| | (생략) |
| 凡物有定分 | 만물은 정해진 분수가 있으니 |
| 榮衰遞運迭 | 영화와 쇠함은 돌고 도는 것이다. |
| 殞霜物不死 | 서리맞은 국화가 죽지 않으면 |
| 古人指爲擘 | 옛 사람들이 괴이하다 할 것이다 |
| | (중략) |
| 恐作我友羞 | 내 벗이 부끄러움을 느낄까 두렵고 |
| 將爲斷還撤 | 순환하는 철리를 끊어 버리게 되니 |
| 揮謝客言歸 | 손님의 말에 사의를 표한다. |
| 擧英心悵悵 | 꽃부리 마음이 어떤지 근심스럽기만하구나 |
| 我非愛爾花 | 나는 이 꽃을 아끼는 것이 아니오 |
| 我實愛爾節 | 이 꽃이 절개를 아낀다오 |
| 惜花懼懷節 | 꽃을 아껴 절개가 끊어짐을 두려워하고 |
| 任爾保天拙 | 하늘이 내려 준 것을 보존하여 |
| 盛衰歸造化 | 성쇠를 조화옹에게 맡기고 |
| 心期兩無缺 ¹²²⁾ | 마음은 어그러짐이 없기는 기약한다. |
| | (하략) |

모든 사물은 정해진 분수가 있고 榮衰는 돌고 도는 것이다. 가리개를 만들어 국화를 보호하는 것은 撤理를 끊어 국화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라 여긴다. 동계는 국화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화의 節概를 사랑하는 것이니 때가 되어 꽃이 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自然現象을 관조하면서 순환하는 자연의 立法을 확인하고 그 道에 따라 살아 가려고 다짐하고 있다. 自然法則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자세이고, 넓은 의미로는 인간도

122) <客有勸我作架覆菊 謝以詩> 木集 권1, 169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것은 非自然的일 뿐 아니라 非人間的인 일이 된다.¹²³⁾

| | |
|-------------------------|--------------------------|
| 瓦落垣頽見野蓬 | 기와 무너지고 퇴락한 담장너머 들쭉만 보이네 |
| 年來四友待桐翁 | 이래로 사우는 나만 기다렸구나 |
| 一朝茅棟居然就 | 아침녘 띠집에서 여유로이 나가 보니 |
| 方丈當前送晚風 ¹²⁴⁾ | 방장산에서 늦바람이 불어 오네 |

이제 동계는 자연의 품 속에서 안정되고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있다. 담장너머 보이는 들쭉이나 隱者에게 어울리는 茅棟과 한가로이 나가보니 방장산에서 晚風이 불어 온다는 것은 세계의 한가함과 조용한 기쁨을 나타낸다. 들쭉, 사우, 만풍 등의 모든 自然景物은 인간과 서로 어울려 화해로운 관계에 있다. 동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저물녘과 같은 여유와 한가로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거의 감정이 배제된 이 詩에서 동계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詩語는 '居然'이다. 事物에 動하지 않아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 내는 것이다. 그의 정신이 人慾을 완전히 떨쳐 버리고 투명해졌음을 의미한다.

人慾에서 벗어나 자연에 자신을 맡겨야 舍自然할 수 있다. 私慾에 사로잡혀 常心을 잃어 버린다면 인간으로서의 所以를 잃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기본원리와 자연의 運行을 통해 아무런 굴절없이 그대로 발현된 것이 山林과 江湖이다. 이러한 공간으로 돌아 가려는 사상이 深度를 더할 때 자연에 몰입하여 物我一體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 | |
|-------|---------------------|
| 欲晴晴未了 | 이제 막 밝아 오려는데 |
| 朝靄在山阿 | 아침 안개는 산기슭에서 피어 오르네 |

123) 申用浩 「李奎報研究-意識世界와 文學論을 中心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5) 112면.

124) <偶吟> 木集 권1, 140면.

林間人迹罕 숲속에는 인적이 드물고
庭畔鳥聲多¹²⁵⁾ 뜰에 새소리 자자하구나

한 폭의 山水畵를 보는 듯한 이 詩는 삶의 괴로움이나 고민과는 무관한 여유와 넉넉함과 평화로움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작가의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다만 自然景物만을 제시된 이런 류의 작품은 각 자연경물에 이끌리기 보다는 그들이 합쳐져서 자아내는 전체상 혹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집중해야 한다. 동계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산기슭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나 인적이 드문 숲이나 자자한 새소리가 아니다. 이러한 景物이 합쳐져서 드러나는 맑고, 한적하고, 넉넉한 세계이다. 이제 인간은 자연과 둘이 아니고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친화하게 된다. '人迹罕'과 '鳥聲多'의 시각적 의미지와 청각적 의미지의 對句는 자연의 평화로움과 한적함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사람을 등장시켜 자연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소리로써 그 자연이 靜的이거나 나른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여 생동감이 넘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합일한 인간의 정신이 맑게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詩가 드러 내는 世界는 실제의 자연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내면 풍경이다. 尙自然하여 世俗의 일체의 관계를 초월한 정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125) <晴後卽事> 木集 권1, 140면.

IV. 結 論

본고는 桐溪 鄭縑의 삶의 意識變貌에 주목하면서 그의 詩世界를 살펴 보았다. 2장에서 다룬 것은 동계의 개인적 사회적 처지이다. 그가 살았던 선조, 광해군, 인조 年間은 內憂外患과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모순의 인식과 그에 대한 개혁의지가 창출되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늦게 벼슬에 나간 동계의 世界認識과 行動의 規範이 된 것은 '性理學的 義理觀'이다. 이러한 의리관은 道義를 중시하는 가문과 忠, 信, 篤, 敬을 중시하던 부친의 가정 교육과 실천철학인 남명의 학통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의리관은 政界에서 不義를 보면 直諫을 올리고 時議가 합당하지 않으면 辭疏를 내고 歸鄉하는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강인한 인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유의해야 할 것은 그의 행동이 지닌 내면적 의미이다. 동계에게 있어서 直言 辭疏는 無道한 세계를 바로 잡으려는 행위인 동시에, 그러한 세계 속에서 自己定位를 확인하려는 행위이다.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무도한 때에 그는 正道 正義 實現이라는 大義 앞에 스스로를 던진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直言, 辭疏, 그리고 좌천, 탄핵, 유배의 시련을 포함한 행동 속에서 삶의 확인과 자기구제를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는 正道 正義는 반드시 實現되리라 믿으면서 어둠 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확인하고 완성하였다. 이러한 예비적 고찰을 통해 동계의 시세계를 검토한 결과 세가지 특징적 국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투철한 의리관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현실참여 의지와 道의 실천 의지를 담아 理想實現를 表明하는 作品群이다. 동계가 이상으로 삼은 忠은 義에 근거한 추상적 원리이지 對者的 德H은 아니다. 忠이 對者的 德H이라면 처음 신하의 관계를 맺었던 임금에 대한 본래의 입장을 끝까지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忠이 義라는 추상적인 도덕원리에 근거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임금에 대한 一貫된 태도를 반드시 고수할 필요는 없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는 서로 天理와 本性에 입각하여 道를 실천하는 경우에만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하와 마찬가지로 임금 역시 하늘이 품수한 虛靈純粹한 本然을 잃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닦는 도덕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계는 이러한 忠의 실천으로 直諫을 최우선한다. 신하라면 충간으로써 정치를 바로 잡고, 소인배 간신배에 의해 임금의 총명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임금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直言을 올리는 것이 신하의 마땅한 도리이다. 忠의 실천항목으로 諫言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임금이 임금다 위지기 위해서는 임금 스스로 덕을 쌓고 도를 행하려 노력해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신하의 몫이다.

2. 정치적 시련으로 인한 좌절감과 향수 등 인간적인 고뇌를 담은 作品群이다. 동계는 사변적인 철학보다는 행동, 실천의 철학을 견지하여 학문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투철한 성리학적 의리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개인의 이념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수용하지는 않는다. 더우기 동계가 정계에 나갔던 혼란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는 주로 言官職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념인 성리학적 의리를 실현하려다 번번히 유배, 탄핵, 폄하를 당한다. 광해군 3년(1611) 사간원 正言으로 경운궁 율기는 일을 정지하도록 청하다 경성판관으로 좌천됐다. 동왕 5년에는 영창대군 옥사를 보고 귀향하려다 탄핵을 당하고, 그 이듬해에는 <甲寅封事>를 올려 유배형을 선고 받는다. 인조 원년(1623)에는

인성군에 대한 尙慰說을 주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사직하고 귀향한다. 동계의 의식의 변모를 살피는데 10년간의 유배는 중요한 의미를 띤다. 동계의 경우처럼 政見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방될 때 유배는 정치인에게 한계상황으로 다가온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유배상황을 자유로이 극복할 수 없으며, 또한 이는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공간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추방인 유배는 정치인의 신념이 세상에 받아 드려지지않고 거부당했다는 의미이다. 동계는 '의리'로 忠信을 다하려다 당한 禍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유배는 심각한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正道를 주장하다가 추방당하고 이로 인하여 느끼는 소외감은 正義 실현에 대한 신념이 강한 인간형일수록 더 큰 시련이 된다. 그의 이념은 義理가 구현된 세계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에게 강요된 현실은 義理가 통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다. 그래서 그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온갖 갈등과 고뇌를 경험한다. 絶島라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공간에서 고독감, 궁핍의식, 자아 상실감, 자기 연민, 무력감, 이별의 정한, 고향 상실감 등 우울하고 어두운 제 감정의 혼조를 보인다. 이러한 동계의 현실인식은 좌절과 어둠속으로 침잠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의지를 내포하는 것이다. 좌절과 비극의 인식은 그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러한 자아의식의 변모는 無道한 세계를 행동에 의해 개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현실을 내면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3. 좌절감과 향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서와 자연에의 침잠을 통해 심성을 수양하고 天理를 수용하는 脫俗的인 境地를 보여 주는 作品群이다. 自我의 本源을 추구하는 心性修養의 시는 유배기 말기에 쓰여진 작품으로 10년 동안의 유배기간에 고독과 향수, 소외 등 어두운 제감정을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修身

하는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 심성의 수양은 유학자의 본원적 문제인 동시에 세상에 나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된다. 동계의 경우 자연에서의 심성 수양을 통하여 어둡고 절망적인 감정을 극복하여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찾고 선비로서의 참모습을 되찾아 天理에 순응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한다. 實踐的인 學問傾向을 견지하던 동계는 政治的 敗北로 인해 觀念的 內面的인 現實認識으로 변모한다. 유배는 외부에 의해 정치현장에서 추방된 경우이고, 은거는 스스로 정치현장에서 벗어나 山林에 묻힌 경우이다. 이 둘은 모두 정치현장이 아닌 山林에 거처했을 때 쓰여졌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유배말기에 자연의 선택은 정치적 패배로 인한 것이었다면 병자란 후의 某里 은거는 세상에 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연에 숨은 경우이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동계가 자연을 찾았던 입장과 처지가 다르게 보이지만 그의 생애 전체로 볼 때 이 둘은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두 경우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피처로서 자연을 선택한 경우이다. 즉 동계는 유배말기부터 이미 정치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정치현장에서의 자아의 실현보다는 자연에서의 심성수양을 통한 내면적인 자아의 실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즉 동계는 잦은 정치적 패배로 인해 차츰 내면적인 성향으로 '편향성'을 보인다. 그러나 동계는 자연 속에서 흥취나 감흥을 느끼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한다. 그는 자연에서 심성을 수양하고 차츰 그윽한 자연과 친화감을 느끼는 정도이다.

지금까지 동계에 대한 논의가 일반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동계의 삶과 문학이 사립과의 전형으로 봐도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동계만의 독특한 문학성을 발견하고 구체화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동계다음에 대한 검토는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參 考 文 獻

- 「桐溪集」 「韓國文集叢刊」 75 (民族文化推進會, 1991)
「史記列傳」
- 高定佑, 「桐溪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1986).
- 琴章泰, 「義理精神과 선비精神」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우석, 1986).
- 김대행, 「絶島 謫居와 文學의 길 - <만언사>를 중심으로」, 「양순필박사화
갑기념논총, 語文學論叢」 (학문사, 1993)
- 김명희, 「두시에 나타난 달의 의미지考-인간적 요소를 중심으로」, 「杜詩研
究論叢」 (이우출판사, 1982).
- 金相助, 「松江 鄭澈研究-삶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
문, 1981).
- 김상홍, 「다산 정약용 문학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5).
- 金鐘振, 「冲庵 金淨의 文學世界-16世紀 士林派 文學의 一段面-」 (성균관대
대학원, 1985).
- 裴宗鎬, 『韓國儒學의 哲學的 展開 續』 (圓光大 출판국, 1989).
-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1987).
- 성범중, 「韓國漢詩의 意境設定 方法과 樣相에 관한 研究-朝鮮時代 詩話集 소
재시를 자료로 하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신용호, 「李奎報研究-意識世界와 文學論을 中心으로」 (고대 박사학위논문,
1985).
- 安炳鶴,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 梁淳秘, 『濟州流配文學研究』 (제주문화, 1992).
- , 『충암의 제주유배한시소고 - 해도록을 중심으로』, 『覓南 金一根각 사화감기념논총』 (1985).
- ,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문학연구』, 『논문집 32』 (제주대, 1991.6).
- , 『회현의 탐라잡영 연구』, 『논문집 33』 (제주대, 1991.12).
- 우응순, 『朝鮮中期 四大家의 文學論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 元容文, 『尹善道文學研究』 (國學자료원, 1987).
- 李明賢, 『韓國의 傳統的 德日에 관한 現代的 研究』 『哲學思想의 諸問題』 (1), (한국정신문화원, 1983).
- 이민홍, 『사림과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5).
- 이원주, 『사림과문학』,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이창용, 『매월당의 굴원 수용 양상』, 『국어국문학』 26 제91호 (국어국문학회, 1987).
- 임형택, 『16C사림과의 문학의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비사, 1975).
- 전형대 외, 『한국고전시학사』 (기린원, 1986).
- 趙麒永, 『河西 金麟厚 詩 研究』, (연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조동일, 『山水詩의 경치, 흥취, 주제』, 『국어국문학』 98(국어국문학회, 1987).
- 조명기 외 33인저,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宇石, 1986).
- 최진원, 『國文學과 자연』 (成均館大 出版部, 1977).
- ,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88).
- 韓敬姬, 『濟州島 風土文學 研究-朝鮮時代 來島文人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논문, 1990).
- 韓國哲學會 篇, 『韓國哲學연구』 中卷 (1978)

<ABSTRACT>

**Consciousness Transfiguration Aspect
of Dong Gae Jung Own.**

Kim, Kyung-Hee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ang-Jo



This paper is on the poetic world of Dong Gae Jung Own as taking notice of change of consciousness in his life. Through the result of the study of his poetic world, I ascertained three characteristic aspects.

1. As a politician who has a intense justice, his works express fairness and justice including his will of actual participation and his practical will of morality. Dong Gae made idea of loyalty which is bas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at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4.

d on justice. The justice is a concept of abstract moral principle, so it is not always hold on coherent attitude on the king. Dong Gae thought that direct admonition is the most important to realize the loyalty. A king should be effort to become a true king by himself, but if he was wrong, government official should be reformed him.

2. His works have humanly sufferings such as frustration and homesickness due to political trials. Dong Gae held on to not so much speculative philosophy as practical philosophy, and practiced intense justice of Song Lee School unrelated in study's attainment. But whenever he practiced justice of Song Lee School, he was exiled, impeached, speared ill each time. For ten years lived in exile, it has very important meaning in order to study of his change of consciousness. At that time, he experienced all discords and sufferings which br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idea and actuality. His actual recognition adopted a positive attitude in order to receive the actuality and connoted the turning will of new aspect rather than fell into frustration and darkness. The recognition of frustration and tragedy makes opportunity overcome such a suffering. In the step of frustration and suffering, the discord between the ego and the world go forward the step which asperate the idealism through the step of self-examination.

3. In the course of overcoming of the frustration and the homesickness, his works show worldly ground which cultivate his mind and accept natural laws through reading and falling into nature.

His poetry which was written at the end of exile period began to overcome various desperate emotions such as solitude, homesickness, estrangement, etc. To cultivate his mind is not only original problem of Confucian, but also its ground on realization of his idea in the world. Though cultivation of his mind, he overcame desperate emotions and looked for peace of his mind and regained a true Confucian and adapted to nature laws. Dong Gae seemed to dislike political life at the end of the exile. He was interested in practice of internal ego through cultivation of his mind rather than practicing of ego in the political action. Because Dong Gae usually kept moral character in his heart, he perceived a truth with a disinterested motive, going forward, he intended to search for rest of heart and a truth of the universe and the life. This point is related in pursuit of original ego in his poetic world.

